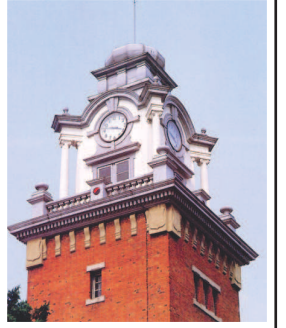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4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1권 4호

5501 Merchants View SQ, #810, Haymarket, VA 20169
Tel: (516) 365-5500

발행인: 南明鎬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 亮 羅斗燮
편집인: 徐倫錫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snuclma@yahoo.com

www.snuclmaaus.org

SNUCMAA of NA 39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9차 연례 학술대회



April 10 - 13, 2025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의 제39차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장소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 워싱턴 교외 지역입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면에 게재되어 있는 상세한 일정 등을 참고하시고 첨부된 **Registration Form**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President 남명호(81) Convention Chair 장세권(01)
Scientific co-Chairs 채영광(02), 김종오(04) Non-CME Chairs 김영애 여사, 서귀숙(84)

2024년 발행된 (Directory)주소록의 변동사항 안내

지난 7월에 2024년 발간된 주소록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나
변동된 사항이 발견 되었으면 다음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동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여 2025년 1월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창회 사무실

snuclma@yahoo.com, 516-365-5500 SNUCMAA #810, 5501 Merchant View SQ, Haymarket VA, 20169

혹은 편집장 서윤석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seokseo2004@gmail.com

SCIENTIFIC PROGRAM

April 12, 2025 (Saturday)
 8:20am-8:30am Welcome Remarks Sekwon Jang, MD
 8:30am-10:00am **Session 1. Glucagon-like peptide 1 (GLP-1) receptor agonists**
 Chair: Jongoh Kim, MD
 Speakers: Jongoh Kim, MD (endocrinology)
 Hyung Jin Choi, MD, PhD (neuroanatomy)
 Hyun-Sik Yang, MD (neurology)
 Jonghanne Park, MD (cardiology)
 Jung-Hoon Kim, MD (geriatrics)

10:00am-10:30am Break
 10:30am-12:00pm **Session 2. Cancer Immunotherapy**
 Chair: Sekwon Jang, MD
 Speakers: Sekwon Jang, MD (Skin Cancer)
 Jong Chul Park, MD (Head and Neck Cancer)
 Haeseong Park, MD (GI Cancer)
 Ghana Kang, MD (Breast Cancer)
 Young Kwang Chae, MD, MPH, MBA (Lung Cancer)
 Kyoungsoo Lim, MD, PhD (Project Optimus)

12:00pm-1:30pm Lunch
 1:30pm-3:00pm **Session 3.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Chair: Young Kwang Chae, MD, MPH, MBA
 Speakers: Young Kwang Chae, MD, MPH, MBA (oncology)
 Sangmoon Lee, MD (genomic medicine)
 Chan-Young Ock, MD (pathomics)
 Min Ji Kwak, MD, MS, DrPH (risk prediction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00pm-3:30pm Break
 3:30pm-5:00pm **Session 4. Award Ceremony**
 Chair: Haeseong Park, MD, MPH,
 Min Jong Kang, MD, PhD, MPH,
 Gye Young Park, MD, MSc

April 13, 2025 (Sunday)
 8:30am-10:00am **Session 5. Career Development**
 (10min for 6 speakers with various career paths, 30min Q&A)
 Chair: Sekwon Jang, MD
 Speakers: Seung Duk Lee, MD, PhD (Transplant Surgery, VCU)
 Chae Sung Lee, MD (Global Medical Director, Sanofi)
 Yun Jeong Song, MD (President, Matica Holdings)
 Eunkyung Park, MD (Nuclear Medicine, University of Utah)

10:00am-10:30am Break
 10:30am -12:00pm **Session 6. Rapid Oral Abstract (10min for 9 GP speakers)**
 Chair: Won Jae Huh, MD

워싱턴 Virginia 지부 동창회 모임



추석 명절을 기하여 9월 18일, 수요일, 정오에 Virginia, Fair-Oak Mall에 위치한 Breakers 식당에서 금년에 두 번째로 모임이 있었다. 59년 졸업 한달수 선배님을 비롯하여 총 24명의 동문과 배우자, Jamie Kim 동창회 사무장을 합하여 45명이 참석했다. 주 중이고 일하는 시간이라 개업하고 있는 동문들이 빠졌다. 그 중에는 58년 졸업하신 이종국 선배님도 진료시간이라, 환자를 보는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다.

조병선(71) 동문의 리드로 서울대학교 교가 합창이 있었고 모두들 기립하여 우렁차게 불렀다. 앞으로 얼마나 여러번 교가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그의 말이 정하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두들 경외로운 자세로 노래를 2절 끝까지 불렀다.

신용계 동문의 재무보고가 있었고 메릴랜드에서 2시간 운전해온 신백호(65)-강성려 님 부부 소개, 수년전에 디트로이트에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왔지만 오늘 처음 동창회에 참석한 장현식(70) 님이 자기 소개를 했다. 이어서 제이미 김 사무장의 인사말과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옮기게된 소감을 말하고 내년 4월 10-13일 이곳, Westin Hotel에서 있을 학회에 대한 설명. 이어서 마이크폰을 돌려가면서 참가한 모든 동문들이 한 분 한 분씩 각자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다.

한식 뷔페로 시작된 점심을 들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식사 끝날 무렵 Fairfax Inova 병원 미팅 중 틈을 내서 서둘러서 참석한 우리 제53대 총동창회장인 남명호(81) 동문의

인사말이 있었고 지난 주 서울방문에 대하여 또 의료대란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후배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북미주동창회가 대처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한승신(76) 동문이 금년부터 자신부부의 은퇴 후 북미주의대동창회에 기부하는 매년 5만불의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선발과정과 그 결정을 알려주었다. 참석한 모두들은 큰 감동을 느끼고 마음 속 깊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한국의 의료사태는 심각하고 그 여파로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출판위원장 서윤석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미 배부된 Directory-2024년 발행 경위와 애로사항 또 인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 수습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50주년 기념 문집-화집의 편집과정과 규모, 출판계획을 설명했다.

사회는 주광국(68) 동문이 맡았고 이날 참석한 동문의 성함은(준칭 생략) 한달수(59) 진창건(61) 고영희(63) 이종두(63) 이병봉(63) 신백호(65) 이종희(65) 채무원(65) 김주평(68) 김철(68) 김진홍(68) 주광국(68) 신용계(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수웅(69) 장현식(70) 박동수(71) 양성훈(71) 조병선(71) 김제홍(71) 배영훈(75) 박인영(75) 남명호(81) 이상 24동문과 그 배우자를 합하여 총 45명이다.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68년 졸업 회장단의 여러 부인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다. - 글; 서윤석

GENERAL PROGRAM

April 10, 2025 (Thursday)
 3:30pm-5:00pm Registration in Main Hall
 5:00pm-6:00pm Delegate Meeting, room Evergreen
 6:30pm 이후 각 동기별 외부 식당에서 동기 모임

April 11, 2025 (Friday)
 7:30 am-8:30 am Breakfast Buffet, room Oaks 1&2
 8:45 am-11:45am Registration at Main Hall
 9:00am-12:00noon Non CME, room Oaks 3
 10:00am-10:30am Morning Coffee Break
 12:00noon-1:00pm Lunch Buffet, room Oaks 1&2
 1:00pm- 5:00pm Non CME, room Oaks 3
 3:00pm-3:30pm Afternoon Coffee Break
 3:30pm-6:00pm Registration at Main Hall
 6:30pm-10:30pm Banquet, room Oaks 2&3

April 12, 2025 (Saturday)
 7:30am-8:30am Breakfast Buffet, room Oaks 1&2
 8:45am-11:45am Registration at Main Hall
 8:30am-12:00noon Scientific Session, room Oaks 1
 9:00am- 12:00noon Non CME, room Oaks 3
 10:00am-10:30am Morning Coffee Break
 12:00noon-1:00pm Lunch Buffet, room Oaks 1 & 2
 1:00pm-5:00pm Scientific Session, room The Birch
 1:00pm-4:00pm Non CME, room Oaks 2
 3:00pm-3:30pm Afternoon Coffee Break
 3:30pm-6:00pm Registration at Main Hall
 6:30pm-10:30pm Grand Banquet, room Oaks 2&3

April 13, 2025 (Sunday)
 7:30am-8:30am Breakfast Buffet, room Oaks 1&2
 8:30am-12:00noon Scientific Session, room The Birch
 10:00am-10:30am Morning Coffee Break
 12:00noon-1:00pm Lunch Buffet, room Oaks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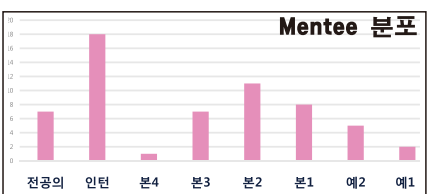
NON CME PROGRAM

4/11/2025 (Friday)
 9:00 -9:50am 이성길(71) The fly fishing and method
 10:00-10:30am Morning Coffee break
 10:30-11:15am 배성호(71) Health Management = Mind Management = Brain Management
 11:15-12:00 홍선영(외부) MorganStanley
 The Intersection of AI and Infrastructure
 12:00-1:00pm 점심
 1:00-1:50pm 박종희(75)
 2:00-3:00pm 홍진(70) 의사로서의 봉사활동
 3:00-3:30pm Afternoon Coffee Break
 3:30-4:00pm 나두섭(73) Should I buy Smart watch or not?
 4:00-4:20pm 서윤석(68) 시계탑 편집과 문집 화집에 대하여

4/12/2025 (Saturday)
 9:00-10:00am 서량(69) 어원학의 즐거움-우리말, 영어, 한자의 말뿌리를 찾아서
 10:00-10:15am Morning Coffee break
 10:15-11:00am 조병선(71) Galaxy AI 사용법
 11:00-12:00 조병선(71) Galaxy AI 사용법
 12:00-1:00pm 점심
 1:00-2:00pm 홍진(70) 은퇴후의 취미생활(화가로서의 두 번째인생)
 2:00-3:00pm 정의철 서울미대학장, 한국미술가의 미술작품전시
 3:00-3:30pm Afternoon Coffee Break

미국 진출 희망 동문들을 위한 자문 회의

모교 후배 학생들 및 졸업생의 미국 진출에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기획된 화상 회의가 10월 12일 토요일에 있었다. 허원제 동문(02, 북미주동창회측 대표)과 염선영 동문(02, 모교 동창회측 대표)의 진행으로 2시간 남짓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고갔는데, 본교에서는 100여명의 의대생들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였고, 미국에서는 한승신(76) 박남훈(80) 남명호(81) 전원일(83) 강민중(89) 김태경(91) 공석원(92) 강현선(99) 박은경(00) 김태곤(01) 장세권(01) 광호중(02) 이태훈(02) 최태웅(02) 조수정(03) 이승덕(03)이익재(08) 이주영(10) 동문 등 여러 동창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멘토 패널로 참여하였다.



허원제 동문과 염선영 동문은 미리 학생들의 질문을 취합하고 패널들에게 질문을 돌리는 등 사전 준비에 공을 들였다. 패널들은 주말 늦은 시간임에도 회의내내 진솔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논의한 주제는 레지던시 매치 준비시 고려할 점, 미국의

사 생활의 실제, 수련, 연구 및 생활, 박사 과정이나 제약회사와 같은 비임상 진로 선택, 전문의의 의료 이민 등이었다. 또한, 내년 4월에 개최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연례학술대회 및 그린 프로젝트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안내도 하였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개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좋았다고 하였고, 전문의의 비매칭 진로(Alternative Pathway)에 대해 한번 더 깊게 다루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GP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같은 주제의 화상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러한 워크샵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미국에 오고자 하는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동창회 회원수도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기사: 박은경 편집위원)

장학위원회 장학생 선발 보고

2024년 장학생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여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심사숙고 끝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 하였다. 김태웅(63)장학금: 정주연, 박유진, 박성재 / 김일영(71) 장학금: 박승원 김영경 / 고 이철희(61, 이강옥 여사) 장학생: 김민상, 노주우 /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서준, 김영은, 권지은 최하나 학생들이 수상했다. 장학생의 감사편지 16편.

제1차 이사회 초록

2024년 9월 21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 서부시간 낮 12시 Zoom화상회의
Zoom 참석자:

최순채(66) 서윤석(68) 주광국(68) 김성환(71) 김영애 김일영(71) 강유구(71)
서인석(73) 전경배(75) 남명호(81) 서귀숙(84) 박은경(00) 장세권(01) 허원제(02)
김종오(04) 박혜성(06) 이익재(08) 존 백(fund manager) 제이미 김(사무장)



Proxy:

최영자(66) 권정덕(64) 조병선(71) 한승신(76) 강민중(91) 김태곤(01) 송경민(09)

- 2024년 9월 21일(토요일) 동서부 zoom 화상회의로 이사회를 시작하였다.
- 지난 회의 초록(2023년 1월 21일 대의원회 겸 2차 이사회)을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승인을 받고 각 부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 Treasurer(85 김자성)의 재무 서면 보고:
2024년 9월 20일 현재의 은행 잔고 액수와 2024년 7월 1일에서 2024년 9월 20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 By-laws committee report(73 서인석, 76 한승신):
서인석(73), 한승신(76), 서귀숙(84), 박계영(90), 강민중(91) member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북미주동창회의 새로운 계획 등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 신속히 논의되어 승인을 얻기 위한 회의에 참여하는 임원, 특히 활성화되지 않은 chapter 등을 과감히 줄여서 대의원회 정족수에 채우는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과 동창회의 기본 골조를 가능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동창회의 미래를 위하여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Board of Director의 구성과 각 chapter의 재조정을 의논하여 구성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실제로 참석을 할 회원으로 채워서 신속한 진행이 되게 하자는 취지이다.

Nominating committee chair 전경배 동문의 follow up이 중요하다고 By-laws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논이 진행이 된 이후에 결정이 나면 By-laws의 minor amendment를 하겠다고 하였다.

현 회기의 executive officer를 찾는 것에 중진 위원회가 의논하여 구하는 것으로 다시 의논이 되었다.

- Fund Raising committee:
근래 몇 년 동안 fund raising committee의 활동이 특별히 없으므로 이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기금 마련이 중요 사안이므로 다른 각 위원회에서 기금 마련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불필요한 단계로 실익이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일에 적합한 후보가 있다면 후보 추천을 중진에서 해 달라는 남명호 회장의 부탁이 있었다.

6. Finance committee report(71 김성환):
2023 회계연도의 세금보고 준비를 한갑수 회계사가 현재 준비 중으로 필요한 은행 서류와 회비와 각 donation summary가 회계사에게 주어진 상태라는 보고가 있었다.

7.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 (존 백 fund manager, 71 강유구)
지난 두 회기의 초과 지급액과 특별 투자 불입액 총 \$25,626을 이번 이사회를 마치고 바로 발송이 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사안은 지난 회기에 결정이 된 것임에도 집행이 안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어야 한다고 의논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방침을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 동창회의 은행 잔고에 무 이자로 있는 대신에 두 가지 방향으로 들어온 장학 기금의 특별 투자와 general fund의 특별 투자, 두 방향으로 적정 기간의 CD 등의 특별 투자로 하자는 제시에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나 금액의 결정은 회장단과 원로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여 10월 즈음에 진행을 하기로 하는데 승인과 제청이 있었다.

8. Scholarship committee report(08 이익재):
김태곤(01) 위원장 사임과 장학위원으로 여러 해 수고하신 이선희(81) 위원의 은퇴 표명으로 현 멤버는 서인석(73) 강민중(91) 김태곤(01) 조수정(03) 이익재(08)이다.

(1) 2024 가을학기 미주 교포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올해에는 매우 quality가 높은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심사 진행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11명이 서류심사를 마치고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합격자 11명에게 합격 편지가 준비되어 이사회 이후 전해질 예정이고, 불합격자 또한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하였다.

김일영(71) 동문이 지원하신 10만 달러에서 올해 처음으로 두 명의 의대생이 2명에게 각 \$5,000씩 지원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매년 \$10,000 지원해 주시는 김태웅(63) 동문의 장학생은 취지에 맞는 학생 3명을 선택하여 \$3,300씩 지원이 된다.

이강욱 여사(고 이철희 61 동문 부인)의 장학금은 2명 장학생이 각 \$2,500씩 지원을 받게 되었고, SNUCAA 장학생 4명은 각 \$2,500씩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에 대한 승인과 제청이 있었다.

(2) 예년에 수상자가 중복 지원을 막을 방책을 더 눈에 띄도록 하여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하겠다.

(3) 지원자 중 비중이 의대생이 많은데, 형평성에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현재로 접수된 서류를 보면 의대생이 높은 quality로 확률이 많아 앞으로는 형평성을 높일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9. Research & Fellowship report: (06 박혜성), (91 강민중):

(1) 젊은 연구자 상: 2025년부터 한승신(76) 동문이 매년 \$50,000 연구기금 기증 예정인데, 이에 대한 2명의 연구자가 현재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이 선정자에게 grant가 주어져야 하므로 남명호 회장이 이를 앞으로 들어올 한국의 서울의대 grant \$30,000과 북미주서울의대 collaborate grant \$2,000을 이 젊은 연구자 상에 먼저 사용함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승인과 제청이 있었다. 이 두 연구자에 대한 시

상식은 내년 학술대회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research grant의 지원자격은 북미 의대의 residency 혹은 fellowship program 또는 Post graduate program에 속한 회원이거나, 임명된 지 3년 이내의 조교수가 대상이다.

심사는 3명의 서울의대 회원과 3명의 외부 인사가 함께 진행을 하였고, 3명의 신청자 중에서 1 Project를 수상자로 하고 2nd는 back up으로 결정을 하였다. 1차 progress report를 받았고, 2차 progress report를 받으면 이는 시계탑에 올릴 예정이다.

(2) 한-미 공동 연구 기금: 위에 언급한 대로 서울의대 grant는 지난 남명호 회장의 서울 방문 중에 김정은 학장과 서울의대 동창회의 한규섭 동창회장, 그리고 맥심 동아리 회장의 참석 하에 바로 \$30,000 송금할 것을 약속받았다. 아직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로 송금이 되지 않아서 follow up 중이다.

한국에서 \$30,000이 들어오면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서 \$20,000을 지원하여 한국의 서울의대 출신에게 grant 지원이 되는 계획이다. 본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3) 서울의대동창회 한규섭 동창회장이 내년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에 \$30,000 지원 하는 것이 남명호 회장의 지난 한국 방문 중에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MOU 각서 sign은 학술대회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의대 뿐만 아니라 타고 출신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였다.

10. Green Project report(02 허원제, 99 임경빈 공동 chairman)
지난 회의에서 매년 Green Project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5,000 지원이 On Line 모임과 Off Line 현장 모임 지원으로 나누어 사용이 되는데, 미국 내에서의 off line 모임이 2024년 5월과 6월에 뉴욕 지역에서 작은 모임으로 있었고, On line 모임이 더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남명호 회장의 서울 방문에는 갑작스레 추진한 모임임에도 22명이 모이는 현상으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과 겹쳐서 미주 진출을 모색하는 후배가 매우 많다는 보고가 있었다.

Green Project의 zoom meeting에는 12명의 GP 동문과 서울의대 동문회와 맥심 회장의 협조로 정구적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이 되어 가면서 미국 진출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을 계획 한다고 했다.

내년 학술대회에서 career development session과 GP 연구 발표 session이 있을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11.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현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시계탑 문집(제7집) 발행 준비 중임을 보고 하였다. 내년 4월 학술대회 이전에 출판이 되어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 동창회 명부 발행 이후에 인쇄 중 발생한 오류에 대한 수정 부분과 발행 이후에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한 부록을 2024년 말 즈음에 정리를 하여 2025년 1월호 시계탑과 함께 배포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꾸준한 독자들과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성심을 다하는 몇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성원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12. Charity report(66 최영자, 85 김자성):
지난해의 아프리카 지역의 빈민층 초등학생 아이들 점심 지원인 Mary's Meal Plan \$2,500 지원에 이어서 올해는 Haiti 지역에 Mary's Meal Plan \$2,500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승인과 제청이 있었다.

13. Website report(68 주광국, 09 송경민):
계간인 시계탑이 나오는 대로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고, 시계탑이 나오기 이전의 소식 또한 받는 대로 바로 올리고 있으므로 많은 회원의 이용이 있기를 부탁하였다.

14. Convention, Scientific report(01 장세권, 02 채영광, 04 김종오):
내년 39차 학술대회의 Scientific session이 토요일 하루 종일과 일요일 오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Hot health care topic이 physician들과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3방면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1)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 (2) Glucagon-like Peptide (GLP-1)
 - (3) Cancer Immunotherapy
- 토요일에 AI topic이 오전에, 오후에는 grant award ceremony와 발표 일요일에는 Career development 주제로 1 session, Rapid Oral Abstract 주제이며, 다른 session이 진행 예정이다.

현재로는 대략 28명의 speakers 참여가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reimbursement 지원은 예년대로 transportation, hotel, registration fee을 요청하였고, 이사회의 승인과 제청이 있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제약회사 등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15. 남명호 회장의 내년 학술대회 참석 지원 요청이 있었고, 많은 젊은 임원의 노력에 감사하였다. 이 들을 추진하는 계획에 힘이 실리도록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원로 임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부탁이 있었다.

참석자의 사진 촬영으로 이사회가 종료되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김경태(55) 동문: 펜실베이니아에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 강상진(59) 동문: 뉴욕 맨해탄에 거주하시면서 북미주동창회 창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미주동창회 회장으로도 봉사하셨던 강 동문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 서희열(61) 동문: 버지니아에서 거주하시다 별세 하셨습니다.
- 김명자 (오태요 '62 동문 부인)여사: 네브라스카에서 거주하시던 김여사께서 지난 8월 13일 별세하셨습니다.
- 라찬국(64) 동문: 오랜 지병 끝에 지난 10월 20일 커네티컷에서 별세 하셨습니다.
- 김정웅(68) 동문: 오랫동안 남미 페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시다 별세하시어 지난 9월 27일 LA 영락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 문광재(68) 동문: 디트로이트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활약하시며 평소 즐겨하던 수영 운동 중에 9월 21일 갑자기 별세 하셨습니다.
- 최희경(조철영 '75 동문 부인) 여사: 오하이오에서 거주하시는 조 동문의 부인께서 지난 9월 19일 별세하셨습니다.
- 고기영(71) 동문: 오하이오에서 radiation oncologist로 활동하시다 7월 3일 별세 하셨습니다.

10월 10일 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인귀(67, CT) 동문



1. 그때는 막연히 졸업하면 미국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왔지 달리 무슨 심오한 계획같은건 없었습니다. 달랑 250불을 들고, 그 중 40불을 일본공항에서 가족 케이스로 예쁘게 포장된 내쇼날 트랜지스터 라디오 사느라고 써 버리고.

2. 미국 온지 2년 반 동안 총각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한달만에 만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고 지금까지 50여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들 셋 낳아 키우다 보니 행복이니 뭐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3. 어릴 때부터 너는 크면 의사가 돼라고 brain wash가 되어서 의사가 되었

고 의사가 되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외과 계통의 직업을 찾다보니 어쩌다 이 비인후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40년 개업하다가 은퇴했습니다.

4. 힘든 일 보람있는 일 모두 개업하고 있는 동안 여러 번 있었지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가정에서 행복하고 좋은 친구들과 즐겁고 그렇게 순조로이 사는 것이 그저 좋습니다.

5. 숨겨둔 얘기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당구치고 술 마시고 가정교사해서 용돈 벌고 시험치고 또 치고 하다보니 졸업하게 되었네요.

6. 저는 의사가 좋습니다.

7. 자식 키우는데에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야지요.

8.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이지만 하는게 좋단니까 정기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미국 의료시스템이 아직은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남편 서휘열(61)을 추억하면서

남편과 1967년에 결혼을 하였으니 오래도 살았는데 서로 별난 성격이 아니어서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싸우는 일 없었으나 어느 날 하루는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후에도 자주 싸야 하겠다 했으나 그것으로 소리 지르는 일은 끝이었습니다. 원래 외과 전공이어서 수술하는 일이 재미있었다고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정신과를 했으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30여 년을 다른 문화 속에서 정신과 의사를 해내었으니 대단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은 어느 엄마가 He is the best Psychiatrist라고 하는 편지를 boss에게 보내왔다고 해서 어떻게 했기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 엄마가 딸들이 셋이 있었는데 모두 말썹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모두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남편은 엄마 탓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엄마는 어깨에 짐이 벗어지는 기분으로 참으로 기뻐했다고 그래서 편지를 정신과에 보냈다고 합니다. 또 법정에 간 적도 있었고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데 무난하게 70세에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와서 정신과 의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한 취미는 새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새를 보러 파나마도 갔었고 이름도 알아야 했고 덕분에 뒷마당에 오는 새들 이름도 모두 알았습니다. 또 영화를 좋아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었고, 영국의 Oxford 대학에서 Movies for fools라는 program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덕분에 Oxford University라고 쓰여 있는 증서가 여럿 있습니다. - Mrs. 서휘열(61)

김정웅(68) 학형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 김정웅은 1943년 9월 14일 황해도 황주에서 부친 김자영 장로님과 모친 김애혁 권사님의 장남으로 출생. / 1962년 서울 중고등학교 졸업 / 1968년 서울의대 졸업 / 1967년 아르헨티나로 가족 이민, 그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소아과 전공의 수료후, Allergy Subspecialty 공부함. / 1986년 LA로 이주 영락교회 교인등록 / 한인 타운에 medical practice 개업 / 1994년 장로 장립 / 2024년 9월 24일 소천.

친구 김정웅은 자기 자랑할 줄 모르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남을 비판하거나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웅은 이웃을 돕는데 참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군을 제대하고 보건소 근무를 끝내며 미국으로 오기위해 intern job을 구할때 자기 바쁜 일정 중에도 저를 위하여 국제전화를 여러 번 하며 인턴 자리를 찾아서 취직시켜준 친구였습니다.

그는 80년을 살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훌륭한 남편, 아버지였으며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로서 모범이 되었고, 그는 선교에 헌신적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 Uzbekistan, Mexico, Mongolia, Kyrgyzstan로 다니며 의료선교로 봉사하였습니다.

금년 9월 14일, 마지막이된 Peru 선교 중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그의 81세 생일 이였고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유가족으로 부인 김혜경, 장남 김의택, 차남 김의현, 장녀 김의숙, 그리고 세 손주들이 있습니다. 두 아드님과 따님이 모두 훌륭한 의사입니다. 장례식은 9월 27일 영락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하관식이 Rose Hill Memorial Park에서 이어졌습니다. 김정웅 장로님, 그대는 이세상 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심을 압니다. - 동기 최철(68)

5. 의대 학창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이나, 국민 (초등)학교 시절에 숨겨놓았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담이나 숨은 이야기.
6. 다시 태어나서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법관, 정치가, 사업가, 예술, 문학가
7. 자녀를 양육하는데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나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 필요하다면 물론 자랑이 되어도 좋습니다.
8. 현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운동?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9. 현재 무슨 취미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종교활동을 하시나요?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김성철(67, TX) 동문



1. 1972년 뉴저지 병원에 Internship 1년 계약으로 도미하였으 며 가지고 온 돈은 2백 달러로 기억 됩니다.

2.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친구분의 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들 낳았을때 행복 했습니다.

3. 외아들인 나를 부모님이 원하셔서 고3 마지막에 공대에서 의대로 정했습니다. 의사는 생명에 대한 compassion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과 했습니다.

4. 7살 먹은 환자가 교통사고로 숨을 못 쉴때 emergency intubation해서 중환자실로 옮긴 후 6개월 후에 아무 brain damage없이 깨어난 후 대학 졸업식과 결혼식에 참석한 일.

9.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한국 연예프로 드라마도 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right choice, right decision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억이 없음.

6. 생명을 살리고 완쾌된 환자들을 보는 기쁨으로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다면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7. 가능하면 일찌기 재능을 발견해서 자녀가 좋아하면 그길로 나아가게 지원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8. 걷기운동 조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 의료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미국의 현 의료 시스템 중 Medicare system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9. 오페라와 좋아하는 음악 듣고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간 140명의 합창단원들과 함께 세계각국의 노래를 그 나라의 언어로 노래 합니다.

10. 동창회와 수고하시는 시계탑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0. 돈도 받지않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닥터 고기영(71)을 보내는 슬픔



지난 7월 3일 Dr. 고가 세상을 떠나고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후 카톡으로 우리에게 소식과 Eulogy를 보내와서 3년 동안 그가 투병했던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IPF)의 진단을 대부분의 동기들이 몰랐기에 너무 놀랐고, 알고 있었던 근처의 한두 친구들도 마지막 입원 후 이렇게 빨리 사망하여 그 슬픔이 더 컸다고 한다. 모두가 고기영 군을 많이 사랑했고 그보다 자신이 Radiation Oncologist로 IPF가 lung cancer와 비슷한 나쁜 예후를 갖는 것을 잘 알았으며 그 자신이 이런 슬픔을 참으며 조용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프다.

닥터 고는 아주 어려서부터 당시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조교수이셨던 아버님이 6.25사변 후 이북으로 가시고 난 후 홀로 서울 효자동에 있는 기와집에 남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효자로 살았다. 예과시절에 친구들이 저녁을 먹고 술좌석을 끝낼 때에도 음식을 덜 먹고 집에 가서 어머니이 이불 밑에 따뜻하게 숨겨둔 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번 나도 그를 따라갔다가 그의 방에서 자면서 사랑하시지만 엄격하게 기영이를 키우신 그 어머니를 뵈을 수 있었다. 내과 핵의학 교수였던 삼촌 고창순 박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후 내과 1년차에 남았다. 곧 이어서 민병철 교수의 장녀와 결혼하고 도미하게 되었다. 인턴 때에 심이지장궤양출혈로 고생했고 그것은 과한 병원일과 동료들과 함께 한 과한 술 모임이 원인이었고 어떤 때는 피를 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기영이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는 항상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다. 탁구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였고 슬쩍 배운 당구도 수준급이었다. 또 학생 때는 연극반원으로 참여했다. 예과 때는 우리 학년이 주가 되어서 올린 최소한 두 편의 연극을 같이 출연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연극인 테네시 윌리엄스 작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그는 남자 주연으로 Stanley 역을 맡았다. 주인공은 큰 눈과 큰 코를 가졌고 목소리가 낭랑하였다. 나는 여자 주인공 Blanche (블랑쉬)를 짝사랑하는 Mitchie(밋취)라는 조연을 맡았다. 두 번째 연극은 이오네스쿠의 "왕은 죽어간다"라는 Antitheater(반연극) 작품을 했고 이번에는 내가 주역을 했다. 당시 외로웠던 의대생 연극쟁이가 되었던 우리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도미 후 1976년 외과 레지던트 1년을 뉴저지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이때 우연히도 기영이가 북부 뉴저지 근처 리빙스턴의 San Banabas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 그 부인 미세스 고는 어렵게 난 큰 딸과 당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맛있는 밥을 만들어 나를 대접해 주어서 고마웠다. 당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는 치질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고생하던 일을 기억한다. 1년 후 닥터 고는 Cleveland Clinic으로 이동하여 Radiation Oncology 수련 중이었는데 이 병원이 당시 세계에서 제1위로 가장 많은 심장 관상동맥 수술을 하고 있어서 중동의 왕족들이 수술을 받고 가는데 그들이 퇴원시 전 병동의 의사들에게 \$100씩 존지를 주어서 받았다고 자랑하던 생각이 난다. Wisconsin으로 가기 전에 그는 Mansfield Ohio에서 일생 동안 개업하면서 살았는데 그즈음 그는 골프에 대한 사랑과 집념이 강했다. 오하이오에 사는 선후배들에게 gentleman golfer로 알려져 있었다. 또 탁구의 전도사였고 탁구야말로 땀이 나는 운동이라고 외치던 그의 음성이 생각난다.

'슬픔이란 자신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아닌, 타인 또는 옆에서 보는 타인에게 전해져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앙드레 말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에서 말한 것을 되새겨본다. 나의 슬픔의 노래(Song of Sorrow)는 소리 내어 울지 않고 미소로 Hug 할 수 있는 노래 가사歌詞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Hug 할 수 없는 고기영에게... - New Port Coast, CA에서 박진국



이주영 동문(10월, 정신과)



1. 미국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졸업 후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래 심장내과를 하고 싶었지만, 인턴 때 내과 전공의의 삶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국 정신과 수련 첫 2년 동안 임상에 흥미를 못 느끼고 방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차 때 Cornell University에서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의 대가 Otto Kernberg 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오신 정도인 교수님께서 도입한 북리딩과 토론 수업에 참여하면서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신치료를 배우면서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환자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외래 케이스를 책과 엮어서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정 교수님에게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들은 저는 제대로 정신과학 및 정신분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 전문의 취득 후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 전공의 지원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정신건강의학과 한국 보드를 따고 군에 있던 3년간 USMLE를 보았습니다. 추천서는 정신과 과장님께 1장, 전공의 과정 때 병행한 석사 논문 지도교수님께 1장, 해외 학생 실습 때 만났던 미국 교수님께 1장, 그리고 석사 때 함께 공저자로 논문을 썼던 미국 교수님께 1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신과에 지원을 했던 2018년은 정신과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라서 매칭에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보다 3-4년 먼저 매칭에 성공하신 한국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문의 시험 중 구술시험 부분을 준비하면서 쌓았던 정신분석 관련 지식과 정신치료 수련 경험이 특히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 지식을 인터뷰 때 영어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케이스를 정리할 때 너무나도 자주 쓰는 표현인 "leading up to"도 몰랐었고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project one's intolerable self to others" 같은 표현은 실제로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행 준비가 많은 사람들이 견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online community와 group chat의 발전으로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

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3. 전공의 수련 과정 이야기 궁금합니다.

저는 2018-2021년 두 번째 전공의 수련을 메릴랜드대학/웨퍼드프랫 프로그램에서 받았습니다. 한국 미국 정신과 수련을 모두 경험하고 돌아와 보니, 한국 수련은 방목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를 보게 해주는 "권한"을 주고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혼내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료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모델링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바쁘다 보니 전공의가 환자 인터뷰하는 걸 오래 관찰하지 못했죠. 교수님들은 하루에 100명씩 외래를 보다 보니, 전공의도 환자를 깊게 제대로 평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었죠 (이 문제는 정신과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 2년차가 끝나도 저는 제 환자 평가 능력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3-4년차 때는 무엇이든 더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석사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연구 위주의 과정이어서 임상적으론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건너올 때 석사 때 연구 이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신과 학회회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조건으로 정신치료 케이스를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수련의 질이 어느 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언어적인 장벽도 컸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한국 전공의 과정에서 잘못 배운 것들의 비학습(unlearning)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2-3번만 하던 Full case presentation과 Case formulation을 매일 여러 번 할 것을 요구받으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단명만 쓰고 바로 치료 계획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Full presentation은 퇴근 후에 ward meeting을 위해서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방금 본 환자에 대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을 받았고, 불편한 언어로 이걸 해내다가 보니 첫 2년은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과 동료들은 제가 버벅거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2배가 걸리는데도 잘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님은 회진 중간에 저를 앉혀 놓고 제가 레지던트보단 의대생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뭘 개선해 볼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되물으면서 답을 찾아갔습니다. 추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로 바꿔 단기적으로 맞닥뜨리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었던 것은 힘들 때 마음이 맞는 레지던트 친구와 자주 어울린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여서 불만을 성토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4. 군의관 시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첫해는 철원 와수리 부근 3사단 (백골부대) 의무대에서 정신과 군의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신과 외래 업무도 했지만, 부적응 병사들을 평가하고 전역 판정 소견서를 쓰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 후 2년은 후방으로 내려와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행정직 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무사령부가 수도권 (분당)에 있었음에도 임상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저보다 교류 우선순위가 높았던 군의관들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시 신혼이었고, USMLE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야전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직책이라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군과 의무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영어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통역병이 워낙 자주 휴가를 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때마다 통역 업무도 맡아서 그쪽 연락장교와 직접 대화를 했거든요. 또, 용산 부대 내에서 군인과 군가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Community Hospital을 방문하였었는데, 안전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정신과/중독 치료 병동은 물론 사회복지사 및 심리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던 군의관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사가 같은 팀원 같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회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돌아와 보면 군의관 때가 두 나라에서의 바뀐 전공의 생활 사이에 휴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저는 현재 J1 Visa waiver 2년차로 콜로라도 어린이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임상 업무로 보내는 중입니다. Children's Hospital Colorado에 소속된 두 개의 Clinic(Aurora와 Highlands Ranch) 이틀씩, 그리고 하루는 재택근무)에서 오전 8:30-오후 2:30 외래 진료를 봅니다. 보통 하루에 초진 1명, 재진 5명 정도를 봅니다. 콜로라도 의과대학 학생들과 일주일에 이들은 함께 외래를 보며 교육을 합니다. 중간에 짬이 나면 학회 위원회(AACAP family committee)에서 맡은 일을 하고, "이주영 도미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찍고, 틈틈이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정신과 클리닉을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은 시장 조사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환자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6. 콜로라도는 어떤 곳인지요.

저는 J1 waiver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했는데, 최소 3년 근무 의무 조항 때문에 육아를 고려해서 업무량이 가장 적은 일을 찾았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Denver와 캘리포니아의 Santa Cruz County였는데 그 지역 물가를 고려해서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콜로라도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저희 가족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거의 매일 맑은 날씨, 훌륭한 자연 경관, 안정적인 치안, 적절한 물가, 그리고 탄탄한 공교육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고려해서 덴버 남쪽의 Highlands Ranch라는 덴버 근교에 집을 샀습니다. 여긴 아시아인은 약 10% 있는데 다수가 인도계입니다.

덴버 도심 지역은 특이하게 차이나타운이 없습니다. 중국계보다 베트남계, 인도계, 한국계 아시아인들이 더 많다는 느낌입니다. 또, 고도가 높아 첫 몇 달 동안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가쁜 지역입니다. 기후는 준 사막 기후로 굉장히 건조하고 해가 쨍쨍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가끔 많이 오기도 하는데, 다음날이면 햇볕에 도로의 눈이 다 녹습니다. 덴버 지역은 보스턴보다 겨울이 훨씬 온화하구요, 메릴랜드에 비하면 여름이 덜 습합니다. 전에 살던 두 지역에 비해 백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동부에 비해서 더 여유가 있으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다 인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심에서 한 시간만 서쪽으로 운전해 가면 로키산맥의 절경과 즐길 수 있는 수많은 하이킹 트레일과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좀 더 멀리 가면 Telluride, Ouray, Crested Butte, San Juan Mountains에 다른 세상 같은 경치가 펼쳐지죠. 사계절이 아름다운 콜로라도에 아직 안 와 보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육아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아이들이 2살, 갓난아기일 때 보스턴에서 콜로라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Play date, 생일 파티에 열심히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아내가 가끔 자유 시간을 주면 카페에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하

이킹 트레일에 갑니다.

큰 아이는 지금 Pre-K 학년인데 문화인종적 다양성을 생각해서 아시아인 비율이 15-20%가량 되는 공립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보다는 제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합니다. 1)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기, 2)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 보여주기, 3)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기. 소아정신과를 공부해 보니, 결국 나중에 인생을 메타 관점으로 살피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자기 앞에 놓인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mood and self-regula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뭘 주입해서 가르치기보다는 평소애 감정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밀하고도 덜 짜인 놀이 (in-person, unstructured play)를 권장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육아하는 장점은 주변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선을 넘어 관여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 것, 그리고 자연 가까이에서 여유롭게 자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본과 4학년 때 싱가포르 정부에서 저희 학교 본과 4학년 전체를 초대해서 비행기표, 숙소를 잡아주고 병원 구경 및 명소 관광을 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졸업생을 의사가 부족한 싱가포르로 유치를 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었습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싱가포르 의사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번 전체가 여행을 간 것이 예과 때 MT를 떠났던 기분처럼 들뜨고 즐거웠습니다. 그때 동남아 여행을 처음으로 갔는데요, 친절한 사람들과, 후한 인심, 그리고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특히 말레이시아의 Laksa, 필리핀의 Lechon, 태국의 Green curry!) 그 이후 한국에 있는 동안 휴가 때마다 동남아를 매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스쿠버 다이빙을 함께 배운 태국 Koh Tao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9. 취미 활동은? 요즘 관심 분야는?

하이킹, 자전거, 음악 들으면서 독서하기, 스노보드 좋아합니다. 올해 육아와 급성 허리 디스크 문제로 취미로 하던 운동들은 쉬고 있습니다. 운동 치료사가 가르쳐 준 허리 근육 운동만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주영 도미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는 미국에 건너온 한국 의대 졸업생분들을 인터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에 반하여 벌어진 의대생 휴학 사태 시 한국 학생들을 돕고자 다른 한국의대 출신 분들과 협업했던 릴레이 Zoom 강의 녹화본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의료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채널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의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약 3배 성장했습니다. 요즘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경로(비 Match)로 미국에 오신 분들을 섭외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

제 앞으로의 단기 계획은 개업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신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가족 치료 교육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고려 중인 경로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콜로라도 대학의 소속을 파트타임으로 유지하면서 미국 레지던트, 펠로우 수련에(다음면에)

SIGETOP, 50 YEARS, BE FOREVER!



Lee, Hahn Joong(65)

Sigetop, 50 years,
 Be forever in the space time of the universe of infinity,
 Be a moment of truth reflecting the lives of thousands of alumni
 Who were the warriors from Korea, pioneers from Korea,
 Constructing and building the country from the ashes of the War.
 Although all those alumni were medical doctors,
 Their mission was no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miners
 And nurses in West Germany then in their national effort
 Building Korea from the ground up,
 Not only in medicine but also in every other walk of Korean life.

Sigetop, 50 years,
 Be forever being essential but hidden from limelight
 Part of history of Korea,
 The story of our alumni, SNUCMAA of North America,
 The story of doctors, warriors and pioneers from Korea,
 part of the miracle of Han River,
 Documenting, recording, and presenting testimony to
 Blood, sweat and tears,
 Yet what a determination! What a passion and enthusiasm!
 in every page of Sigetop and
 Every page of the letters they wrote to their loved ones in Korea.

Sigetop, 50 years,
 Be forever, being part of my life, my family, and my country,
 Our father land, our mother land, Korea and America.
 I was 25 years old when I left Korea.
 I am 84 years old now.
 I remember everything on the day I left.
 I remember everything I must do today, and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in between.
 I remember what I did on that fateful day, June 30, 1965.
 I just decided to listen to Beethoven symphony No. 5 only,
 Hours on end, while crossing the Pacific Ocean from Tokyo to Hawaii
 Promising myself in my heart not to forget my mission in America.

Sigetop, 50 years,
 Be forever in the hearts of our alumni,
 In the hearts of sons and daughters from the Land of Morning Calm,
 Sigetop, the never-ending story of our alumni,
 Be forever sparkling
 In the hearts of thei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andchildren's grandchildren!
 Perhaps the story best told by
 Beethoven symphony number 5.

Some day I die to follow the dearest alums who left this world.
 Yet the earth stays.
 The sun stays.
 The stars stay.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stay.
 Hopefully and prayerfully Sigetop stays.
 Hopefully and prayerfully
 Our never ending story never stops sparkling
 In the hearts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Of our alums.

Mt. Rainier 국립공원 여행기

박진국 (71, 남가주)



워싱턴 주에 위치한 Mt. Rainier 국립공원을 2024년 8월 말 5박 6일 산행을 하였다. Mt. Rainier National Park은 1899년 다섯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90마일 지점에 위치하며, Geological Wonderland이며, 만년설이 덮여있는 곳이다. 미 본토에서 제일 큰 Glacier(Emons)가 북동쪽에 위치하고, Subalpine Meadow, Falls, Lake and Spring이 존재한다. 이곳은 American Alpine Association에서 Mountaineer들 트레이닝하는 장소이며, 매년 천명 정도의 Mountaineer들이 14,081 피트높이의 Columbia Crater Summit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1년 방문객은 1~2 백만 명 정도라 한다. 이 곳은 내가 20여 년 전 짧게 산행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Mt. Rainier의 산행길에 있었던 아름다운 Giant Purple Indian Paint Brush(Wildflower)와 눈이 덮인 트레일이 인상적이어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산행계획을 하게 되었다.

남가주에서 떠난 비행기는 북가주부터 시작되는 Cascade 산맥을 따라 올라가며, 최소한 4개 이상 눈 덮인 산, 호수, 큰 강들을 보여주었다. 시애틀 공항에서 2시간 걸려 Ashford에 있는 Lodge로 가는 동안 Rainier 산 정상에 Glacier를 볼 수 있었고, 지도 상 Rainier Peak는 남과 북 두 개가 있다. 사각형 모양 Mt. Rainier Park은 최소한 다섯 개가 넘는 입구가 있고, 동쪽 입구는 유명한 PCT (Pacific Crest Trail)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3개의 trail -Nisqually Entrance에서 Paradise Corridor, Sunrise Spot, Longmire Museum-Inn -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예약한 Lodge는 National Park 입구에서 50미터 이내에 있는 Ashford 도시에 있어 여러모로 매우 편리했다. 작은 도시였지만 다양한 국제적 레스토랑들이 있어 불편함이 없었다. 여름 성수기 때는 다른 National Park과 같이 Timed Entry Ticket을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이틀을 Paradise Corridor Entrance를 예약하였다.

도착 다음 날인 산행 첫날 오전에 4마일의 Skyline Trail로 Alta-Vista Paramount Point까지 걸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안개구름이 산 중턱까지 걸쳐 있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매우 추웠다. 이 트레일에서 여러 그룹의 Alpine Mountaineer들이 2박 3일 Guided Tour로 14.7 마일 정상이 목표지만, 1차 목표는 1만 피트 높이 Camp Muir까지 가는 것이라 했다. 그 이상은 심한 바람으로 생긴 지형적인 문제로 사다리, Fixed Rope, Belay 등으로 기술적 등반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후에는 Camp Rockpoint로 가서 Wonderland Trail 일부인 5~6마일 Carter Fall Trail을 걸어, 첫날 약 10마일 산행을 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Langmire로 가서 Wonderland Trail과 연결된 Rampart Ridge Trail Loop 4마일 하이킹을 하였

다. 이곳에서는 Mt. Rainier Peak Glacier를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Pinnacle Peak에 올랐다. 이곳은 360도 Mt. Rainier Glacier view로 이날의 목표지였다. Pinnacle Peak은 왕복 4마일이고 무척 가파르고 힘든 트레일이었지만 Switch Back할 때마다 Rainier Peak가 무척 아름다워 여러 번 Photo Time을 가졌다. Pass에 도달하니 반대쪽 Snow-Capped 산들 또한 아름다웠다.

셋째 날은 2시간 이상 드라이브를 필요로 하는 National Park 동남쪽 Pack City-Stephen Canyon을 돌아서 동북쪽 Rainier의 거대한 Glacier를 보러 갔다. 이날의 계획은 왕복 4.8마일로 기록된 1st Borroughs Mountain으로, Freezing Lake를 통해 결국 Sunrise Point를 거쳐 2nd Borroughs까지 다녀왔다. 알래스카주를 빼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큰 Emons Glacier를 한눈으로 보아도 그 넓이가 Paradise Glacier의 10배 정도 커 보였고, 강한 바람과 장엄함에 America the beautiful을 느끼게 하는 웅장한 왕복 5마일 산행이었다.

넷째 날은 오전 일찍 Reflection Lake에서 Mt. Rainier을 즐기며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후 Bench Lake Trail과 Snow Lake Trail 두 곳을 약 5마일 정도 걸었다. 모든 Lake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중 가장 아름다웠다. (사진: Reflection Lake)



마지막 날 아침에 다시 National Park에 Narada Fall을 보러 갔다. 트레일은 짧았지만 가팔랐고, 돌이 많아 주의를 요했지만 폭포는 훌륭했다. 폭포 주위의 돌들-15만 년 전 화산 폭발과 지질학적 변화로 생긴 Andesite와 Granite-은 빙하로 인한 exposure로 기암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Mt. Rainier National Park가 Geological Wonder이다.

돌아오는 길에 View Point에서 본 20년 전 Nisqually River와 Glacier 사진은 현재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과거에 비해 그 물의 양과 크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의 일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Mt. Rainier 산행은 미국의 풍요롭고 다채로운 자연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America the Beautiful을 외치며, 이 글이 앞으로 Mt. Rainier National Park 방문하시는 분들께 작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

〈전면에서 계속〉 관여하는 것과, 덴버 정신분석 연구소를 통해 심리치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정신 치료를 잘 배웠던 선배 세대 정신과 의사들이 대거 은퇴 중이라 이 지식을 계속 후대에 전파하고 싶은 의지가 큼니다. 많은 서울대학교 후배들이 미국에 와서 안전하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를 일찍 정하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만한 활동(연구, 봉사, 임상)을 일관적으로 해온 사실을 증명하면 경

쟁력이 세질 겁니다. 이것저것 알게 여러 일을 벌이는 것보다 좁은 분야를 일관적이고 깊게 파다는 기록을 잘 남겨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울대 동문 분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미국에 오면 아름다운 콜로라도를 정착지로 꼭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이주영 도미연구소”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흐린 날씨이다. 14번째 흠을 치고 나니 부슬비가 내렸다. 출지는 않았다.

워싱턴 근처의 68년 졸업 동기가 9명인데 그중 8명이 매주(월요일이나 화요일) 골프를 한다. 신용계 대장과 주광국 부대장이 합동으로 여름에는 Twin Lakes Course에서 겨울에는 Westfields Golf Club의 티타임을 마련하는 노력의 덕택이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 지가 2014년 경부터 거의 10년째가 된다. 대부분의 미국 골퍼들이 그렇듯이 이곳 버지니아에서는 골퍼들의 50%는 한국 동포들이다. 가끔 골퍼를 하면서 과연 여기가 한국인가 미국인가를 생각해 보고 웃는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무더울 때일 수록 한국 사람이 많아진다.

돌이켜보면 우리 68년 졸업 동기들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체력이 좋아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체능 50점을 치르고 합격한 이례적인 학년이다. 그렇게 전국에서 선택된 100명이 합격하여 6년후, 1968년에 103명이 졸업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다른 학년에 비하여 가장 건강하다고 자랑을 해왔다. 그중 한국에 43명이 남고 미국으로 60명이 왔는데 모두들 건강하여 금년 초까지 타계한 8명으로 사망률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낮은 점이 특색이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이상훈 형, 김성열 형, 그리고 이번 9월에 김정웅 형, 이어서 며칠 후 문광재 형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현재 미주에서는 20%가 작고했다. 비록 80을 넘긴 나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충격적이다.

김정웅 형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LA 영락교회의 장로로서 선교를 많이 해온 사람이다. 그는 동기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한 1972년경에 Detroit(연합장로교회 김득렬 목사)에서 결혼하고 소아과 의사로 우리 동문들의 아이들 의사가 되어 돌보아 주었다. 그가 그 후 LA, 캘리포니아로 진료실을 옮기고 교회 일로 바빠서 동창회에는 거의 참석을 못했다. 이번에 80세가 넘은 그가 고산지대 페루에서 자주 가던 성스러운 의료선교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타계한 것이다.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생의 하루하루가 위대한 행적이며



김정웅 부부 2003년, LA, CA 인데 고산지대이다. 2005년경 늘 주위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기독교인 친구 우준균(67년 졸업) 박사도 그곳에 있는 이비인후과 진료소에 가서 한동안 봉사를 한 일이 있다. 당시 28년간의 Lima, Ohio에서의 ENT 개업을 마무리하던 본인도 Dr. Walter Yingling이 개업을 인계하면서 1977년에 나에게 물려준 것과 합한 내 Clinic의 모든 진료 기구를 그의 알선으로 그 도시로 보낸 일이 있다. Lima, Ohio에서 Lima, Peru로. 또한 무거운 진료 기구와 Suction Machine, 환자 진찰 의자를 로터리 클럽을 통하여 바로 Lima, Peru로 보낸 인연이 있었다. 바로 그 도시이어서 회상해 본다. 나라는 다르

한 행적이며 하늘 나라에서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Lima가 그 Peru의 수도인데 고산지대이다. 2005년경 늘 주위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기독교인 친구 우준균(67년 졸업) 박사도 그곳에 있는 이비인후과 진료소에 가서 한동안 봉사를 한 일이 있다. 당시 28년간의 Lima, Ohio에서의 ENT 개업을 마무리하던 본인도 Dr. Walter Yingling이 개업을 인계하면서 1977년에 나에게 물려준 것과 합한 내 Clinic의 모든 진료 기구를 그의 알선으로 그 도시로 보낸 일이 있다. Lima, Ohio에서 Lima, Peru로. 또한 무거운 진료 기구와 Suction Machine, 환자 진찰 의자를 로터리 클럽을 통하여 바로 Lima, Peru로 보낸 인연이 있었다. 바로 그 도시이어서 회상해 본다. 나라는 다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 윤 석(68, 버지니아)



좌로부터 박용현 이현령 문광재 서윤석 2003년

지만 아프리카의 Kenya에서 의료선교 중 김주평(68) 동문과 박동수(71) 동문도 몇 해 전에 고산지대에서 저 산호증으로 우려했던 일도 있다. 건강이 나쁘거나 연로한 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란다. 사고가 오지에서 발생하면 서로 미안한 일이 된다.



문광재 서윤석 이건일 1999년 Detroit



좌로부터 문광재 서윤석 임윤명 2003년

문광재 형은 우렁찬 목소리, 바리톤으로 우리 동창회에 그 명성이 잘 알려진 Detroit의 마취학 전문의이자 증권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인물이다. Wanda와 결혼 후에도 동기 모임에도 자주 보였고 동창회 모임에서도 음악을 통하여 참여했다. 그가 은퇴 후 잘 살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뜻밖에 은비보에 우리는 놀라고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본인은 Ohio에서 있어서 골프를 통하여 Michigan에 사는 그를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다. 고 마천일(68) 형과 그는 본인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 들인 일본제 Driver가 더 멀리 나간고 말하면 내가 쓰던 것을 잘 사 가던 좋은 친구들이다. 때로는 가지고 간 후 도중에 상점에 들러서 물어본 후 시중가격보다 비쌌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딸 Alysia Moon, 문소리는 보스턴에서 성공적인 Audiologist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같이 우리 동기 졸업 40주년 일본 여행에도

참여했다. 후지산 고원지대의 유황 연기가 나는 공원에서 현재 이곳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김희주(68) 박사가 위험을 당했을 때 그 사위가 산 아래에 주차한 버스로 뛰어내려가서 아스피린을 들고 올라와 복용시켰던 생각이 난다. 아마도 문 박사는 근래에는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좋은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 언급된 수영장도 그 Complex 안에 있다. 문 형이 근래에 건강 문제로 어려웠던 것을 미처 몰라서 안부도 전하지 못하였기에 더욱 미안할 뿐이다. 미시간 남부 Novi 근처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소화기내과 이병순 박사가 이번 10월 27일 Korean American Culture Center of Michigan에서 거행될 장례절차에 관계된 일에 68년 동기를 대표하여 수고를 하고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권정덕, 홍선경 선배님 부부 학년인 제18회, 64년에 졸업한 분들이 졸업 60주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 학년은 국내의 33%-35%가 현재의 사망률이라는데 4년 후 우리 68년 동기들의 통계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어느덧 80-82세가 되었다. 이제는 신체의 여기저기에 고장이 나서 완전한 건전체는 드물고 수술과 치료를 받고 살고 있는 동문들이 많다. 필자 자신도 지난 7월 1일 전립선 비대증으로 Laparoscopy, Robot aided Prostatectomy를 받다가 혈관과 심장의 CO2 Embolism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일도 있다. 예정에 없이 ICU에서 3일 지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환자와 의사의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생각해 보았다. 막상 환자가 되어서 보니 옛날에 내가 환자들에게 했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 피도 뻘히고 전신이 학생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간호사가 목욕도 시켜줬다. 그러나 생사가 갈리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최고로 좋다고 느끼게 했다. 위험한 고비에서 있었던 나를 밤새도록 성심껏 간호해주고 아내와 내 외손녀에게도 친절했던 간호사 C.N.가 Angel처럼 느껴졌다. 국내외에서 흩어져 살던 많은 친구들이 위로차 카카오톡을 보내와서 무거운 병상에

누워서도 고마웠다. 또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제도의 장단점도 생각해 보았다. 미국에 못지 않게 의료시스템이 발달한 우리나라이다. 불행하게도 요즘은 그것이 파괴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학생들이 학교에 안(못) 가고, F 학점을 받는다면 나중에 큰일이다. 특히 외국에 나올 때는 불리하다. 이것은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학 발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그렇게 안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의사들이 출근을 안(못) 한다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타협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제는 타협을 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80세도 넘은 외국에서 사는 노인의 이런 절규를 누가 귀담아들겠는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예기치 못했던 현재의 마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용감하게 양보와 타협으로 좋은 결말이 오기를 기도할 뿐이다.

Florida 주와 North Carolina 주를 휩쓴 Hurricane Helene이 많은 피해를 남기고 떠났다. 2주째 흐린 날이 오늘부터 개었다.

금년초에 68년 미주 동기 zoom 모임에서 모금한 경조사 금고의 잔고가 유용하게 되었다. 앞으로 5-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우리 동기는 정신이 약해지거나 육신이 떠나갈 것이다. 슬픈 일이지만 인정하자.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일 것이다. 지난 62년 전에 청량리 문리대 의예과에 들어와서 같이 평생을 공부하고 인술을 베풀기 위하여 성장한 우리, 자랑스러운 벗들이여. 우리는 힘든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자. 우리 옆에는 좋은 친구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었다. 이제는 서로 안아주고 다투지 말자. 부러지지 말자. 유연해져서 서로 더 사랑하자, 우리가 아껴야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 이 땅과 하늘을 생각하자.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지 않느냐?

친애하는 이상훈, 김성열, 김정웅, 문광재 님들이시여 당신들은 우리의 소중한 벗이었어요.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우리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하... 근래에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저무는 해님 따라 집으로 가자

안갯속에 떠있는 해님은 둥근 수밀도水蜜桃 일과를 끝내고 안식처安息處로 떠나신다 우리도 해님 따라 이제 집으로 가자

산보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슴과 새들처럼 빛과 열기로 세상을 가꾸시던 해님을 따라 우리도 천나무 사이 지평선 저편으로 가자

풀들이 누워라 힘든 팔을 내리거라 나무들이 편한 잠 속에서 들릴 실개천 소리, 대지의 숨소리 새벽에 또 오실 해님 맞을 희망으로 집으로 가자



68년 동기 합창에서 기타 치며 리드하는 문광재 동문,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워싱턴 버지니아, 2016년 6월



스위스 기행

노영일(68, 시카고)

스위스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0년 우리 딸 결혼식 때 갔었고, 10여년 전 유럽 여행 중 며칠간 딸네 집에 들른 적이 있다. 그때는 우리 딸이 사는 St. Gallen 근처만 구경했다. 이번에는 스위스 여러 곳을 다녀 보려고 2주간의 계획으로 여행을 떠났다. 특히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80이 넘는 나이에 4천미터가 넘는 고산지대에 올라가도 탈이 없을까 은근히 겁이 나고 켤졌다. 시카고에서 직행 비행기로 9시간 걸려 Zurich에 도착했다. 사위가 공항에서 우리를 픽업해서 한 시간 거리의 St. Gallen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가서 여장을 풀었다.

스위스의 공식 국호는 CH(Confoederatio Helvetica)이다. Confoederatio는 United라는 뜻이고 Helvetia는 Switzerland라는 라틴어이다. 스위스에는 26개의 주(州 Canton)이 있는데 CH는 United Cantons of Switzerland라는 뜻이다. 미국을 USA(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지만 물가는 엄청 비싸고 중산층들은 검소하게 산다. 미국보다 작은 집에서 살고 사치하지 않는다. 거리는 깨끗하고 종이 한 장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집어 휴지통에 넣는다. 시골에도 농기구나 허드레 물건을 아무 데나 놔두지 않고 잘 챙겨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폴도 2-3인치로 열심히 부지런히 깎아서 푸른 들판이나 골짜기가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이 국민성인 것 같다. COVID pandemic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해서 국가 재정을 위해 안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푼이라도 더 공짜 돈을 받으려는 국민들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 딸이 사는 곳은 St. Gallen 이란 곳인데 스위스의 동북방 지방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수적이고 기독교 신앙이 강한 지방이다. 어디를 돌아 보아도 그림엽서같이 아름다운 고장이다. St. Gallen에는 희귀한 책들을 보관한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돌아 보았다. 아직도 손으로 빚어 장작불에 굽는 재래식 빵집이 있어 둘러 보고 쿠키를 사 먹었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야외 식당에서 사돈 내외와 점심을 먹었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독일어를 못하고 사돈은 영어를 못해 Google translate를 통해 대화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딸과 사위는 직장 일이 바빠 은퇴한 사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두 내외가 근처에 있는 Lake Constance와 호변의 Rorschach이라는 작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Lake Constance 건너편은 독일 땅이다.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 Appenzell이라는 마을도 가 보았다. 이곳 식당에 들러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점심을 먹으며 친교를 하는가 일상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모두 평화스럽고 단란한 분위기였다. 이곳 특산물 Appenzell 맥주는 빙하 물로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좋았다. 이곳 사람들은 빵과 소시지를 많이 먹는데, 빵은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지만 소시지는 독특한 맛이 있었다. 식당 벽에는 옛날 목동들이 소를 몰고 다닐 때 메고 다니던 배낭들을 전시해 놔는데 주로 빵과 소시지를 넣고 다니며 먹었던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일찍 샌티스 산을 향해 떠났다. 사돈 내외와 사돈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갔다.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 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사진도 찍고 경치도 감상하였다. 만년설을 뒤집어쓴 높은 산, 초록색의 골짜기와 들판, 거기에 어울리게 여기저기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집들, 모두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샌티스산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차로 갈 수 있어서 편리했다.

샌티스 산은 고도 2,501 미터로 스위스 동북방 Appenzell 지방의 알프스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곳 바로 정상까지 올라갔다. 24년 전 같은 시기에 이곳에 왔을 때는 몹시 춥고 눈이 쌓여 건물 밖으로 나가기도 못했는데 이번에 가보니 눈은 찾아볼 수도 없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놀랐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다. 이곳 정상에서는 볼란서, 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이태리, 그리고 스위스까지 6개국 영토를 내려다볼 수 있다.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연봉들은 장관이었다. 우리 손녀들은 이곳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갔었다고 한다.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돌아올 때는 가던 길과 다른 길로 오며 다른 시골 풍경을 감상했다. 물론 스위스의 매력은 높은 산과 호수에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시골 작은 마을들도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주말에 딸과 사위 그리고 큰 외손녀와 함께 융프라우 관광에 나섰다. 금요일 퇴근 후 떠나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무려 5시간 걸려 Lauterbrunnen 이란 곳에 도착했다. 보통 융프라우 관광은 Interlaken에서 투숙하며 기차를 타고 융프라우에 간다는데, 이곳 토박이인 사위는 Lauterbrunnen이 더 좋다고 한다. 이곳에 콘도를 빌려 2박을 했다. Lauterbrunnen은 알프스 산중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마을로 이곳에는 300미터가 넘는 폭포들이 있고 바위 사이에서 뿜어 나오는 폭포도 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Kleine Scheidegg까지 가서 거기서 Jungfrau Railway로 갈아탔다. Jungfrau Railway는 톱니바퀴가 달린 mountain cogwheel railway로 Jungfrau 정상까지 올라갔다. 기차표 값이 무려 250 스위스 프랑(약 \$300) 이었다. 고산지대에서 운영하고 정비하는데 그만큼 많은 경비가 든다고 한다.



Jungfrau 정상은 Jungfrauoch라고 하는데 joch는 yoke 즉 멍에라는 뜻이다. 4158 미터의 Jungfrau 산과 4105 미터의 Moench 산 사이에 빙하가 있어 마치 소의 멍에, 또는 말의 안장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Jungfrauoch에서 내

華嚴寺 가는 길



김병오 69년 Haymarket, VA

동창생들 관광 리무진에 올라 한바탕 엮어졌다
 낡은 세월 떠 마시고 취해 웃고 가다 앞에 앉은 정신과 의사 문득 묻는다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떻게냐
 술 깨는 소리에 또 앞다투어 한마디씩 거든다
 삶은 역시 苦海다, 삶은 사랑이다
 삶은 인내다, 선택이다, 깡이다
 리무진이 춤추듯 흔들렸다
 가장 젊은 부인을 옆에 앉힌 외과 부장 얇은 잠결에서 깨어나며
 부시시 한마디,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웃음꽃 만발하며 창밖에 단풍이 더 붉어진다
 떠나기 전 정거장에서 啓示처럼 들었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문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어린 가족 받쳐 든 담뱃잎 같은 여인 아버지 목쉰 소리가 창가에 매달린다
 한 자락 뜬구름으로 시선 옮겨지며 저마다
 외길에서 숨어 흘러던 젊은 날 눈물을 듣는다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삶 속에 있다니
 서로를 비추는 세상
 서로를 울여주는 세상
 一多多一
 물음표 같은 산길 돌아가는 막막한 여정의 끝머리
 저무는 智異山 굽이굽이 붉은 눈시울 같은 노을 아프다
 차창에 비치는 形形色色 곱게 물든 가을 산 넘어
 리무진 버스가 覺皇殿 그림자 고요한 화엄사 마당에 도착하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 不二門 불빛 비스듬히 다가온 것은

려 전망대로 걸어가며 긴장이 되었다. 혹시 숨이 가쁘거나 어지럽거나 고산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 문제도 없었다. 전망대에서 밖으로 나와 사진도 찍었다. 빙하에 굴을 뚫어 각종 얼음조각을 전시해 놓는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다. 또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알프스를 내려다보며 점심을 먹었다.

Jungfrau 구경을 하고 내려와 Interlaken 관광을 하였다. Interlaken 이란 두 호수 사이라는 뜻인데 호수와 거리의 꽃 장식 등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융프라우 가는 사람들이 대개 이곳에서 한밤 자기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이 많이 있었다.

일주일간의 가족여행을 마치고 Zurich로 올라와 딸과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여기서부터 여행사의 전문 가이드를 따라 나머지 여행을 시작했다.

취리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Limmat 강 양편에 구도시가 있다. Lindenhof는 로마시대 지은 성곽으로 보리수로 꼭 차있어 보리수 공원이 되었다. 이곳은 취리히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 보인다.

리마트 강 서쪽에는 Fraumuenster라는 13세기에 지은 가톨릭 성당이 있는데 이 안에는 사갈의 작품인 stained glass window가 있다. 리마트 강 동쪽에는 Ulrich Zwingler가 시무하던 11-12세기에 지은 Grossmuenster가 있다. 그 건너편에 Zwingli가 살던 Zwinglihaus가 있다. Zwingli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이다. 교황의 횡포와 부조리한 관행(면죄부 판매 등)에 반기를 들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순수한 교회를 주장했다. 그는 금식과 성직자의 독신주의도 반대하여 현대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교리에 초석을 놓았다. 독일의 마틴 루터와는 초기에는 마찰이 있었으나 진지한 토론 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톨릭 파의 공격을 받아 전쟁 중 종군 목사로서 참전하였다

가 1531년 전사했다. 취리히 시내에는 아직도 전차가 다닌다. 시청, 변화가, 명품 판매 거리, 뒷골목 시장 등을 돌아보았다.

다음날 북쪽 독일과의 경계선에 있는 Schaffhausen으로 갔다. 이곳에는 Rheinfall이란 유럽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다. 여기에서 라인강이 시작된다. 유람선을 타고 폭포 아래까지 들어갔다. Munot fortress는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으려고 건립한 요새인데 160 계단을 걸어 올라가느라고 숨을 헐떡거렸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톡톡히 받은 기분이었다. 이곳에서 Schaffhausen 시내가 다 내려다보인다. 수도원 마당에는 Schiller의 종이 있는데 1486년에 제조되었으며 무려 4.5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종으로 성당의 종들 중 가장 큰 종이라 한다.

Fredrich Schiller는 이 종에서 영감을 받아 "The song of the bell" 이란 유명한 시를 썼다. "I call the living, I mourn the dead, I repel lightning". 이곳에는 또 IWC 시계 본사가 있다.



남쪽으로 두 시간 내려가면 루체른(Luzern), 또는 루쎄(Lucerne) 이라는 호반 도시가 있다. 이곳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란 조각이 암벽에 새겨 있다. 창에 찔려 고통스럽게 죽어 가면서도 창과 방패를 거머쥐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다. 오래전 과거에 스위스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번 돈으로 고국의 가족들을 부양하였다. 스위스 용병들은 용감하고 신의가(다음면에 계속)



상공에 꿈을 싣고 (3)

박정일 (67, 시카고)

지한 대화를 하고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기동뿌리를 뽑아 마련한 거금을 들여 아이슬란드 관광을 하면서 계곡 사이로 거대한 폭포를 눈 높이에서 바라보며 느꼈던 감동처럼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비행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비행기는 기종에 따라 운항 속도가 천차 만별이지만 파일럿의 비행경력을 따질 때에는 비행거리가 아닌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초행 파일럿이 12시간 연습 비행을 하는 거나 최대 항공기 조종사가 대륙횡단을 12시간 하는 거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비행교관이 이것저것 지시만 하고 2시간을 보내도 2시간의 비행경력이 그의 기록에 올라가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백과사전 몇 권에 해당하는 분량의 법조항을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에이전트의 해석에 따라 코에다 걸면 코고리, 귀에다 걸면 귀거리 식으로 적용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제도가 나를 포함한 많은 파일럿들에게는 권한 남용 내지는 횡포로 인식되지만 대국적인 면에서 보면 그 많은 비행기가 온 세계를 휘젓고 다녀도 단지 극소수의 인명 피해만 내는 것은 이 우수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여지껏 비행중 가장 인상에 남는 광경은 시카고에서 Fort Lauderdale로 비행하던 중 Orlando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북상하던 허리케인과 맞닥뜨린 때이다. 아직도 조금전에 일어난 것 같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걱정, 흥분속에 갑자기 신기루 같이 나타난 거대한 은색 구름기둥은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로 눈 앞에 보듯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다. Orlando에 가까와 지면서 지역 컨트롤 타워와의 지속적인 교신중 마이아미에서 동북쪽으로 진행중인 허리케인에 대한 경고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허리케인의 진행 방향, 속도, 그리고 내 비행기의 노선과 비행속도를 계속 주시하는 한편 컨트롤 타워의 지속적인 지시를 따라 비행하던 중, Fort Lauderdale 비행장은 포기하고 제3의 비행장을 찾으라는 지시가 왔다. 앞서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비행기내에 장치된 GPS Apps를 통한 서치를 한 결과에 따라 Titusville 비행장에 착륙하기로 결정한 후 비행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다.

내 비행기는 IFR Flight plan 이라는 계기비행을 통해 타워의 실시간 안내로 좌우상하, 구름위, 구름아래, 구름속, 또 지상까지 덮어버린 안개속으로 날아 갔는데 그 비행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10분이 한시간 같은 비행을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날고 있었다. 얼마를 날았는지 갑자기 하늘이 짙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콧 앞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아직도 끼고 있던 썬그라스가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은빛 세계가 내 앞에 전개 되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내 앞에 골포

스트 같은 무지막지한 구름기둥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역사적인 슈퍼 볼 게임에서 시카고 볼스가 승리 골을 차 넣는 장면을 벤치에서 목격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구름 기둥은 지상에서 시작하여 내 비행기 고도인 9천 피트보다 적어도 1만 피트는 더 높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참으로 경이로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아마도 100 마일도 넘는 듯한 직경의 구름기둥을 근접거리에서, 그것도 햇빛이 나의 비행기 뒤쪽에서 구름을 향해 투사한 뒤 반사되어 오는 강렬한 빛을 보는 것으로 장관이었다. 구름 위를 비행할 때 햇빛이 반사되는 뭉게구름이 아름다운 광경은 가끔 보았지만 이처럼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빛을 뿜어내는 솜털어리에 은을 덮어 놓은 것 같은 광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거대한 구름기둥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동안 마치 그 벽을 따라 비행하고 있는 내 위치는 밝은 햇빛 속이었고 바람조차 별로 없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불행 중 일어난 행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 구름기둥이 그 속은 지옥이나 다름없이 풍속 100 내지 200마일의 물벽은 바람이 땅에서 구름 꼭지까지 회오리 치고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벌어지고 있는 괴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구름 기둥에서 30마일 가까이 접근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재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이 찬란하고 황홀한 은빛 표면은 모르는척 태연하게 내 눈앞에서 천천히 여유 있게 복상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면에서 계속> 있어 바티칸에서는 아직도 스위스 용병을 근위대로 쓰고 있다. 불란서 혁명 때 루이 16세의 근위병도 스위스 용병이었는데 왕이 궁지에 몰리자 다른 병사들은 다 항복하거나 도망갔는데 스위스 용병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왕을 지키다가 전멸당했다. 스위스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싸우다 죽은 아들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자고 이 조각을 만들어 놓았다. 그 후 시계산업, 금융업, 관광사업 등으로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루체른의 관광 포인트는 카펠교에 있다. Kapellbruecke (Chapel bridge)는 1333년에 건조된 지붕 있는 나무다리이다. Reuss 강을 가로질러 204 미터인 이 나무다리는 천천히 걸어가며 양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불행하게도 1993년 부주의한 관광객이 던진 담배불로 화재가 일어나 거의 전소되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에 복원되어 재 개통되었다. 천정에는 루체른의 역사를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3개만 남고 모두 다 타버렸다. 다리가 끝나는 곳에 St. Peter's chapel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Chapel교라는 이름이 붙었다.

Luzern 호수 선창가에서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건너 Vitnau까지 갔다. 유람선에서 내다본 호숫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Vitnau에서 궤도 열차를 타고 Rigi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Rigi 산은 1,797 미터로 사방이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맞은편에 알프스 산들이 있어 매우 경관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구름이 자욱이 끼어 경치를 구경할 수 없었다. 걸어 내려오며 주위의 경관을 감상하는 트래킹 코스로 일품이라 하는데 구름 속에 한치의 앞도 보기 힘들어 한 정거장 걸어 내려와 기차를 타고 Weggis라는 마을까지 내려왔다. 웨기스에서는 호반의 야외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으나 비가 억수로 쏟아져 실내에서 저녁을 먹고 야외 천막에서는 스위스 고유의 Fondue라는 후식을 먹으며 비 내리는 루체른 호수를 바라보았다.

Bern은 스위스의 수도이다. 시내 중심가에 시계탑(Zytlogge)이 있다, 1405년 건축된 천문학적 시계이다. 거리에는 여러 가지 분수대가 있다. 아인슈타인이 살던 아파트도 보인다. Bern Minster는 1421년 시작하여 150년 만에 완공된 고딕형 교회로 본래 가톨릭 성당이었으나 지금은 개신교 교회이다. 시 외곽의 주택가는 강물을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

Bern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Gruyeres란 작은 마을이 있다. Bern 보다 남서쪽은 불어를 쓰는 지역이다. Gruyeres는 불란서식 이름이다.

스위스의 언어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Bern보다 북쪽 지방은 독일어 지역이고 서남쪽 지역은 불란서어 지역이다. 남부 이태리 국경지대에서는 이태리어를 쓴다. 공식적인 언어는 스위스 독일어(Swiss German)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독일어의 심한 사투리의 하나이다.

마침 우리가 간 날 여기서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려 길들이 막히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이곳에는 유명한 초콜릿 공장인 Gruyere 치즈는 스위스 전통 치즈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Chateau de Gruyere라는 성이 있는데 15세기에 만들어진 풍치 있는 요새이다. HR Gieger Museum은 영화 Alien에 나오는 미술품들을 전시해 놓았다. 희한한 조각품들이다. 티벳 박물관에는 부처와 히말라야의 고유한 종교 제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와 Martigny에서 한 밤을 자고 여기서 기차를 두 번이나 갈아

타고 Zermatt로 갔다. 여기서 다시 산악궤도 열차를 타고 Gornergrat 정상까지 갔다. 이곳에서 Matterhorn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Matterhorn은 스위스와 이태리 경계에 있는 피라밋형의 산으로 4,478 미터로 알프스 산중 가장 높은 산중의 하나이다. 이곳에는 기상변화가 심해 여기까지 왔다가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도 님 보러 천 리 길을 찾아갔더니 얼굴만 잠깐 보이고 구름속으로 숨어버린다. 불과 몇십분 사이의 변화였다.

Matterhorn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제네바 호수 서쪽 끝에, 불란서와의 경계에 제네바가 있다. 제네바는 국제 외교, 금융의 중심지이다. 제네바 호수에는 매우 높이 뿜어내는 분수가 있다. 시내 제네바 공원 안에는 Reformation Wall 이란 길이가 100 미터가 넘는 조각품이 있다. 종교 개혁자의 조각을 연대별로 새겨 놓았다. 그 뒤편에는 John Calvin이 시무하던 St. Pierre 성당이 있다. 본래 가톨릭 성당이었으나 1535년 개신교 교회로 바뀌었으며 종교 개혁의 본산지가 되었다.

John Calvin (1509-1564)은 불란서의 신학자이자 목사로 독일의 Martin Luther, Zurich의 Zwingli 등과 함께 종교 개혁의 중요한 인물로 꼽는다. 그 당시 불란서는 강력한 교황의 통치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 스위스로 넘어와 본격적인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다. 그 당시 스위스는 각 Canton (주)들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경찰력도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스위스의 Basel로 갔다가 후에 제네바에 있던 William Farel과 연합하여 활발한 종교 개혁운동을 벌였다. 나는 신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지만 다만 그가 현대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 교리를 세웠다는 가이드의 말을 기억할 뿐이다.

제네바에는 UN 사무국, United Nations Office in Geneva(UNOG)이 있다. 또 하나의 UN 사무국은 Austria Vienna(UNOV)에 있다. 물론 UN 본

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UN 사무국 앞에는 다리 하나가 붙여진 의자 조형물이 있다. 현대의 위험한 세계정세를 표현한다고 한다. 그 옆에는 여러 개의 분수대들이 물을 내뿜고 있다.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로잔느(Lausanne)에 갔다. 여기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그 입구 계단에 1988년 서울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겨져 있다. 현대 올림픽 창시자인 Coubertin의 동상과 꺼지지 않는 성화대도 있다.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면 역시 제네바 호숫가에 Montreux라는 도시가 있다. 몽트뢰는 스위스의 모나코라고 불리며 도박과 재즈의 본거지이다. 거리는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고 나무들까지도 장식품으로 감아 뾰다. 거리에 여러 가지 조각품들도 있는데 중심 거리에 Freddie Mercury(1946-1991)의 동상이 있다. 매년 7월이면 이곳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세계 각처에서 군중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Freddie Mercury는 영국 가수,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록 밴드 'Queen'의 리더였다. 그는 British Indian으로 4 옥타브에 달하는 성대를 가졌고 불같이 열정적인 무대 연기를 했다. 그의 mock operatic masterpiece인 "Bohemian Rhapsody"는 영화화되어 큰 인기를 모았다. 그는 1991년 AIDS로 사망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재즈 페스티벌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거리나 공연 무대에서 재즈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Montreux에서 Interlaken까지 가는 파노라마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과 시골 경치를 구경할 예정이었으나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구경을 잘 못하였다.

Interlaken 못 미쳐 Zweisimmen 이란 곳에서 내려 Interlaken을 거쳐 Zurich까지 올라와 거기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스위스를 살살이 보고 온 느낌이다.

이 여행기에 관련된 사진들은 young ilro.com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 2024년 9월



임진전쟁

16. 직산 전투와 울산, 사천, 순천 왜성 전투

명군과 일본군의 싸움

1597년 정월부터 일본군 병력이 부산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도요토미의 재침이 확인해 지자 왕은 이를 명나라에 통지하고 원군을 청했다. 명나라 조정은 일본이 명나라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꾀심하게 여겨 이번에는 종전 협상 대신에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전략을 바꾸었다.

만력제는 형개에게 총독을 양호에게 경략을 마귀에게 총병관을 맡겼다. 야전 장수들은 양원, 오유충, 우백영, 진우충 등 이었다. 조선군은 경주에 성윤문과 권응수, 의령에 김응수를 배치하고, 한산도에 원군이 수군을 맡고 있었다.



동아일보 울산성 전투 평풍

원군은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하여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자신은 전사하였다. 명나라 장수 양원은 남원성 전투에서 패퇴했고 전주성을 지키고 있던 진우충은 싸우지 않고 도망하여 본진에 합류했다.

선조가 의주에서 이여송에게 전쟁 수행을 맡긴 후로 조선군은 명군 지휘하에 있었다. 시철타로 작전권이 명군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국군이 유엔군 사령관(미군 장성) 지휘하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다.

일본 좌군은 구례와 남원을 점령하고 전주로 입성했다. 우군은 밀양, 합천, 황석산성을 거쳐 전주에서 좌군과 합류했다. 이들은 작전 회의에서 좌군은 호남을 평정하고 우군이 한양으로 북진하기로 했다.

8월 19일 일본 우군 구로다 나가마사와 모리 히데모토는 전주를 출발하여 천안-직산 쪽으로 향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청주 방면으로 북상했다. 구로다군 선발대 2천과 본진 3천 도합 약 5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9월 3일에 명군 선발대가 한성에 도착했다. 경략 양호는 총병관 마귀에게 2천 병력을 급파하라고 지시하고 후에 2천 병력을 더하여 도합 4천 병력이 남하했다. 명군의 지휘관은 부 총병관 해생이었다. 이들은 직산에서 구로다군 5천 명과 만났다. 직산은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다.

이들은 9월 7일 새벽에 직산 남쪽에서 격돌했다. 명군에 소속되어 있던 소수의 조선군은 겨우 길잡이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 지상군의 상황을 옛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자.

"9월 6일 충청도 방어사 박명현의 치계: 이달 2일에 왜군이 금산으로부터 회덕, 임천, 한산 등지에 침입하여 불지르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시발이 군사를 가장 먼저 일으켰으나, 과반수가 도망하여

은 기 철(71, 남가주)

들어졌으며, 충청 병마사 이시언과 신이 거느린 병사들 또한 도망하여 흩어져 버렸으니, 지극히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https://m.blog.naver.com/yis9805/150114768992>

임진왜란(33)-직산 전투(정유재란)
*이 글은 선조실록, 수정실록, 난중잡록, 오스프리 -한,일 전쟁 1592~1597(영국 서적), 컴벳암즈- 일본 전을 참고.

명군은 기마병이었고 일본군은 보병이었다. 전투지역이 비교적 평지여서 보병보다 기동력이 빠른 기마병이 훨씬 유리했다.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나 화력이 뛰어난 명군의 대포에 대항하기 힘들었다.

9월 7일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명군보다는 일본군에게 피해가 많았으나 승부를 가리기 힘들었다. 명군은 수원으로 일본군은 천안으로 일단 퇴각했다. 9월 10일에는 일본군이 직산 북쪽의 안성과 죽산 근처에 나타나 노략질을 하고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9월 9일 제독 접반사(명 제독을 보살피는 조선인 관리) 장운익의 보고서:

"죽은 왜적이 거의 5-6백에 이르고 수급은 30여 개를 베었고... 왜적이 산에 올라가 백기를 드니, 천안의 대군이 즉각 모여들었으므로 중과부적으로 퇴각하였는데, 중국 병사들도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9월 15일 조선 조정에서는 비변사 회의가 열렸다. 일본군이 한양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명군이 이를 추격하려 하자 조선 측에서는 계략인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많은 인터넷 포스팅이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후퇴 원인을 이순신이 명량 해전에서 승리하여 일본 지상군이 한양에 들어오면 서해로 북상하는 수군과 만나서 병력을 증강하고 보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명량해전은 9월 16일에 끝났고 일본군 철수는 9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었다. 더구나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밀리지도 않았다. 일본군은 안성과 죽산까지 진출했고 명군은 한양으로 일단 돌아 왔다.

충청 병마사 이시언이 사로잡은 왜적 후쿠다 간스케의 공초를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양 공략을 하지 말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초에 고니시와 가토는 세 길로 나누어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관백이 사람을 보내어 전령하기를 서울은 침범하지 말고 9월까지 다치는 대로 무찔러 죽이고 10월 안으로 서생포나 부산 등의 왜성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까지 사흘 길 밖에 안되는데 곧바로 돌아간 것이며 전라도에도 머물 뜻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걸을 수 있는 자는 사로 잡아가고 걸지 못하는 자는 죽였으며, 사로잡은 자는 일본에 보내 농사를 짓게 하고 일본에서 농사 짓던 사람은 군사로 바꾸어 해마다 침범하고 아울러 중국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는 명량해전 이전에 일본군에게 왜성 퇴각 명령을 내렸다. 도요토미가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전면전으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있는 지도 모른다.

도요토미는 조선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조선 왕이 무릎을 꿇고 협상을 원하여 조선 영토의 일부(삼남 지방)를 차지하

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으나 짐작해 본다. 요즈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 돈바시 지역을 러시아에게 내주고 전쟁을 끝내게 하려는 수법과 비슷했지 않았을까?

1차 울산 왜성 전투

일본군은 직산에서 본거지인 울산 왜성으로 퇴각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일본 장수는 가토 기요마사 였다. 명군은 울산성을 함락하여 가토를 굴복시키고 부산 왜성에서 일본군을 퇴각시키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울산성 공략에 나섰다.

가토 기요마사는 지금 울산 학성공원 자리에 성을 축성했다.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단 40일 만에 난공불락의 성을 건립했다. 태화강에서 멀지 않은 50미터 높이의 언덕에 자리 잡았다. 해안 쪽이어서 바다를 통한 보급과 퇴각이 용이했고 육지로부터의 공격을 3면에서만 방어하면 되었다. 외성과 내성으로 만들어 화포의 공격에 대비했다. 내성은 3개의 성으로 만들었다. 1성이 가장 높고 3성이 가장 낮았다. 입구는 디글자 모양으로 하여 3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했다. 들어오는 입구는 모두 좁게 했다. 따라서 전체 병력은 적군이 많아도 단위 전투 대비 병력수는 오히려 방어 쪽이 유리하도록 했다. 이순신의 명량 해전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왜성이었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다. 성안에 우물이 없었다.

명군 총독 양호 경략 마귀 조선 도원수 권율과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의 대결이었다. 명군 3만6천, 조선군 1만1천5백 명이 동원되었고 울산성 안에는 일본군 약 1만 명이 있었다.

1597년 12월 22일 경상 좌수사 이운룡은 서생포 해안을 봉쇄하여 일본군 보급로를 차단했다. 서생포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는 배를 타고 울산으로 들어왔다. 12월 23일 전투가 시작되었다. 12월 28일 병력과 화력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조명연합군(이하 명군)은 외성을 쉽게 점령했다. 밖에서 방위하던 일본군은 내성 안으로 모두 들어갔다. 명군은 성벽을 넘어 성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빗발치는 조총 사격을 견뎌내지 못했다. 50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조총의 명중률은 상당히 높았다.

명군은 내성 공격을 포기하고 고사작전을 폈다. 먹물 물을 구하러 성 밖으로 일본군이 나오면 공격하여 포로로 잡거나 죽였다. 명군은 성 주위의 우물을 모두 매워 버렸다. 포위망은 보급을 차단했다. 성안의 일본군은 먹을 물뿐만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가토는 말을 죽여서 피를 마시고 구정물을 적셔서 짜낸 물을 마셨다고 한다. 더구나 음력 12월 말은 양력 일월 말이다. 가장 추운 계절이었다. 춥고 굶주린 일본군은 고사 직전이었다.

그러나 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다. 엄동설한에 명군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사기가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1598년 1월에 사천, 순천 등지 왜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지원병 6만이 울산 왜성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명군은 경주로 일단 철수하여 병력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 5살 난 아들에게 승계했으나 권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다섯 다이묘(영주)들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도요토미 사망을 비밀에 부치고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조선과 명도 도요토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음력 8월 20일 경상 좌병마사 성윤문의 치계: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 말하기를 '관백의 병이 위중하므로 흉적들이 철수하여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생포의 적들은 소굴을 불태우고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부산과 동래의 적들도 소굴을 불태우고 서생포로 향하고 있는데 흉모를 헤아릴 수 없기에 군대를 정비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명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나가기 전에 왜성을 공격하여 섬멸시키기로 결정했다. 울산 공략에 실패한 총독 양호를 파면시키고 형개를 임명했다. 형개는 4로 병진책으로 조선에 있는 왜성 총공격에 나섰다. 3개의 육로와 1개의 수로 도합 4 방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이었다. 서로군은 순천 왜(교)성을 종로군은 사천 왜성을 동로군은 울산 왜성을 공격하고 수군은 바다에서 순천 왜성을 공격하는 전면전이었다.

2차 울산 왜성 전투

1598년 9월 21일 명나라 총병관 마귀와 조선군 별장 김응서는 각각 2만4천, 5천5백의 병력을 이끌고 경주를 출발했다. 김응서는 동래의 일본군을 제압하여 부산에서 원군이 울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9월 22일 선봉장 해생이 울산성을 공격하고 이어서 마귀가 전 병력을 동원하여 나흘 동안 총공격을 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1차 전투에서 물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우물을 파는 등 철저한 방어 준비를 했다.

명군은 성안에 잡혀 있던 조선 사람 1천 1백명을 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명군이 사천성 공격에서 패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귀는 군사를 철수시켰다.

사천성 전투

<https://m.blog.naver.com/yis9805/150115249985>

임진왜란(35)-사천 왜성 전투(정유재란) *이 글은 선조실록, 수정실록, 상촌선생집(명나라 관원 아문, 표하관 기록집), 오스프리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명나라 장수 동일원은 종로군 약 3만 명을 이끌고 사천 왜성을 향했다. 명군 2만6천8백 명과 조선군 2천2백 명이었다. 사천 일대는 시마즈 요시히로를 중심으로 시마즈 가문 5개 부대가 지키고 있었다. 사천은 울산과 순천의 중간에 있었고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오는 길목이었다. 호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진주성과 접하고 있다. 그는 그의 아들 시마즈 다다쓰네와 함께 7천 명의 병력으로 사천 신진리 왜성을 방어하고 있었다.

1598년 9월 20일 명군이 진주 방면에 있는 망진 왜성과 영춘 왜성을 점령하고 사천 고성과 사천 신진리 왜성으로 진격해 왔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시마즈 요시히로는 주위의 작은 왜성들에 흩어져 있던 병력을 사천 고성과 신진리 왜성에 모이게 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천 고성의 병력을 신진리 왜성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경상우병사 정기룡은 2200명의 병력으로 사천 고성을 포위 공격했다. 신진리 왜성으로 들어가려고 사천 고성을 나오는 일본군은 조선군에게서 많은 피해를 입고 신진리 왜성으로 들어갔다.

1598년 10월 1일 명군은 신진리 왜성을 집중 공격했다. 전투 중에 명군의 불량기포 화약체에 불이 붙어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연기와 불이 하늘을 뒤덮었다.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자 이틈을 타서 일본군이 성문을 열고 반격했다. 무려 7천 명의 명군이 죽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시히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조명연합군을 조총으로 공격하고 지뢰를 묻고 쇳조각이나 철정을 대포로 쏘는 등 기지를 발휘하여 방어하고 있었다. 시마즈는 조명연합군 식량창고를 불태워 버렸다. 명군은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을 견지지 못하여 퇴각했다.

순천왜(교)성 전투

고니기 유키나와가 (다음면에 계속)



김영애(수필가)

술술 풀린다. 애주가한테 술은 세상을 풀어주는 해결사다. 목을 타고 그것이 넘어가면, 막혔던 세상이 시원하게 뚫린다. 세상에 안되는 일이 무엇이고, 잘 된다고 할들 무엇이 그리 대단하던 말인가.

맹정신으로 넘길 수 없는 기막힌 순간도, 술만 들어가면 전신에 혈관이 열리고 답답하게 막혔던 세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뚫린다.

술은 때때로 삶의 상처를 달래주는 진통제로, 뻣뻣하고 어색한 대인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로, 속 깊고 고인 감정을 끌어 올리는 마중물로 그 역할이 다양하다. 그런가 하면,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피로 여겨져,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로 천주교 미사 때마다 봉헌되고 있다. 한편 술은 혼백(魂魄)을 위로하는 제사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사람들은 술이 땅에 스며들면 백(魄)을 불러오고, 향 연기는 혼(魂)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제사에서 술은 망자와 산자를 이어주는 연결 다리였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어 과묵하셨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나하게 술이 취하는 날이면 당신의 노래는 동네 어귀부터 시작해 골목 안을 가득 메웠다. “백마강 달밤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어지는 아버지의 노래는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설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남정네들에게 위압감을 줄 만큼 체격이 크셨기에, 사람들에게는 거슬리기가 어려운 동네 어른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밤 골목에서 아버지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주 사실을 알아내어 미소를 짓곤 했다. 평소 말이 없으셨지만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를 몸소 거두고 고요한 골목을 흘러간 노래로 채워 놓길 좋아하셨던 아버지, 숨 막히고 부담스러운 당신의 카리스마가, 정겨운 친근감으로 둔갑 된 것은 애주가였던 아버지의 술이 그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술에는 조여진 세상을 느슨하게 푸는 힘이 있나 보다. 그것은 하찮은 액체로 나약해 보이지만, 경직된 세상 나사를 조금씩 풀어내다, 끝내는 어깨를 누르던 거칠고 힘센 세상도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뜨리곤 한다. 술에 과민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술은 하루를 재충전시키는 배터리로, 지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좁은 시야를 넓혀주는가 하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며 일탈의 신선함을 주는 술. 어찌 보면 술은 찰나의 통증을 잠깐 멈추게 하는 영혼의 순간 진통제 같다. 거친 삶을 마주한 사람이 마시는 약주에는, 아린 상처에 잠시 발라준 빨간 약같이 삶이 활짝 상처를 보듬고 통증을 완화 시키는 그 무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흥겨운 노래로 이어진 골목길을 지나 집에 든 아버지는, 세상 모르게 잠에 취한 나와 언니를 깨워 늦은 밤 노래자랑을

시작했다. 잠이 덜 깬 얼얼한 이마에 일원짜리를 붙여주며 막을 올린 참새 노래 자랑은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얼떨결에 잠에서 깬 나는 다음 날 동네 어귀에서 사 먹을 달고나 생각에 온갖 묘기를 동원하며 코 묻은 일 원을 열심히 쟁겼었다.

아버지는 하룻밤에 정중 한 병을 거뜬히 비우는 대주가이셨다. 어찌다 아버지와 술상을 마주한 사촌오빠나 형부들은 네모난 밥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 깊도록 같이 술을 마시며 속 깊은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내야만 했다.

영혼에 맺힌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주는 술, 그것은 가슴에 맺힌 얽히고 설킨 삶의 실타래를 끌어내 그 매듭을 풀어주고 정리해주는 해결사인지도 모른다. 또 술은 딱딱하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마시지해 영혼과 영혼을 소통하게 만드는 영매사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술의 알코올 성분은 영혼을 소독하고 순수하게 정제시켜 오염되지 않은 진심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기에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 싶다.

술의 어원은 ‘수불’로 물 수(水) 자와 불이 합쳐져 되었다는 설이 있다. 소우주인 몸을 불처럼 달구는 것이 수불인 술인가 하면, 번덕스럽고 불같은 삶을 녹여줄 수불 역시 술이 아니겠는가.

술은 단순히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맛과 향을 즐기 위한 경우가 많다. 요즘 나는 술을 마시기보다는 음식에 넣어 먹는다. 고된 삶을 채워 줄 먹잇감에, 지친 삶의 통증을 잠시 진정시켜 줄 진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짜와 사이비로 오염된 세상이기도, 먹이로나마 순수하게 소독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까 요리하려는 생선에 술을 바르면 그것은 순간 마술을 일으키는지 비린 냄새를 깔끔하게 제거해준다. 술은 세상의 속된 것을 정화시켜주고 청정하게 만드는 정화제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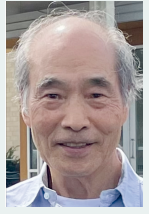
술이 스트레스로 경직된 영혼의 긴장을 풀어주고 완화시켜 주는 것 같이, 그것은 뻣뻣한 고기의 육질 또한 마사지를 하는지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헤아려보면 거칠고 각박한 세상도, 때로는 술의 부드러운 마사지가 필요할 듯싶다. 그래서 서인가,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이지만 술에 취할 수 있는 애주가들의 영혼은 훨씬 부드럽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 같다.

편하게 마시면 일이 술술 풀리지만, 살살 마시지 않으면 질질 꼬이기 쉬운 술. 예부터 술은 ‘미혼탕’이라 하여 사람의 혼을 미혹하는 물이란 의미를 담았고, 근심을 잊게 하는 물인 ‘망우물’이라고도 불리는가 하면, 절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인 황홀경을 맛볼 수 있다 하여 ‘반야탕’이라고도 일렀다.

영혼을 취하게 하는 술의 에탄올. 기나긴 인생에서 가끔 무언가에 취할 수 있다면 삶은 생각보다 흥미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연둣빛 봄에 취하고, 들꽃 같은 사랑에 감취되고, 영혼을 써 내려가는 글쓰기에 황홀해지는가 하면, 나비가 꽃에 탐닉하듯 술에 도취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삶의 일탈이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신선함을 맛보며 더 깊은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생명체의 축복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노라니 불현듯 한 잔의 술이 그리워진다.

필자: 김성환(71, 남가주) 동문 부인

너를 껴안고 울어줄 사람은 어디 있느냐



허서룡 (66, 밀워키)

세차게 몰아쳐오는 저 파도는
누구의 분노인가!
누구의 슬픔인가!

잔잔하던 미시간 호수엔
바다처럼 거센 파도가 몰아쳐온다.
바윗돌에 세차게 부딪치고는
한 줌의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린다.

잠자는 동안 한순간에 무너진
콘크리트 밑에 깔려버린 어린아이!
아직도 꿈틀거리는 피 묻은 손가락!
이미 죽어가는 이 어린 딸의 손목을 붙잡고
하느님이여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목을 놓아 울부짖는 엄마의 미쳐버린 절규인가!

그러다가 엄마도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울어대는 또 하나 어린아이!
너는 엄마가 죽어가는지나 알고 우느냐
그저 집이 무너진 폭탄 소리에 놀라서 우는 것이냐

너의 엄마는 죽었다
너의 아빠도 죽었다.
너의 동생도 죽었다.

모두 죽은 줄이나 알고 우느냐
죽음이 무엇인지나 알고 우느냐
너마저 죽고 나면
너를 껴안고 울어줄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너를 물어줄 사람은 또 어디 있느냐

멀리서 세차게 밀려오던 또 하나의 파도는
바윗돌에 한번 부딪쳐 보지도 못하고 꺼져 버린다.
더 기막힌 슬픔을 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 한들
누가 들어줄 것인가
누가 함께 울어줄 것인가
하늘도 들어주지 못하는 너의 슬픔을!

다시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센 파도는
그래도 끊임없이 몰아쳐온다.
절망의 슬픔과 분노가, 이제는
목마르고 배고픈 굶주림까지
함께 몰아쳐온다.



(이렇게 죽어가는 가자의 어린애가 불쌍합니다)

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기내금연 방송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다. “승객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고객님께서 비행기 밖 테라스로 나가십시오. 테라스에서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8 가지

Money can buy a house, but not home. / Money can buy a bed, but not sleep. / Money can buy a clock, but not time. / Money can buy a book, but not wisdom. / Money can buy a food, but not appetite. / Monet can buy a clothes, but not beauty. / Money can buy a medicine, but not health. Money can buy a sex but not love. So, money isn't everything. - 이덕송

헤드라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었다.
“애, 똥똥아, 텔레비에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란 무슨 뉴스데 매일 나오냐?”
“할아버지, 그건 맨 먼저 나오는 머리 기사란 뜻이에요. 헤드는 머리고 라인은 줄이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묻는다.
“여보, 헤드라인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 했지요?”
“응, 그런데 그게 뭐더라...? 아, 가르마다. 헤드는 머리고 라인은 줄이래.”

비행기내 금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유머를 제조하는데 능숙하다. 얼마전 사우스웨스트 항공편



같은 인생을 살지, Fernando

이 건 일(68, 남가주)

ABBA가 부른 이 Fernando라는 노래는 1975년에 나온 것이지만 가사 몇 줄이 항상 나의 마음을 건드린다. 어제 저녁 인터넷 써핑을 하다 다운로드한 2006년 판 CD에는 그들의 대표곡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그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Fernando. 그 노래 가사처럼 그날 밤엔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었고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별들이 빛났기 때문에, Fernando여 (The stars were bright, Fernando) (중략) 만약 이 일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해도 (If I had to do the same again) 나는 같은 짓을 했었을 거야, Fernando (I would, my friend, Fernando) 가사처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

한다. 후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후회를 하지 않고 살기로 맘 먹은 사람이니까. 단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피아노를 배워 Bach의 피아노 평균율집 (Well tempered clavier)을 저녁 먹고 식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두 번이나 겪었던 끔찍한 레지던트 생활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또 심한 문화적 충격을 받으며 식구들과 힘겹게 적응한 미국 이민 생활과 이번에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하면서 겪은 Internal Cultural Shock를 다시 되풀이하여 보고 싶은 생각 역시 털끝만큼도 없다. 청풍 명월 바라보며, 무위도식하는 백수 생활이 이리도 즐거울 수 없다.

Fernando
Can you hear the drums Fernando / I remember long ago another starry night like this/
In the firelight Fernando/ You were humming to yourself and softly strumming your guitar/ I could hear the distant drums/ And sounds of bugle calls were coming from afar//
They were closer now Fernando/ Every hour every minute seemed to last eternally/ I was so afraid Fernando/ We were young and full of life and none of us prepared to die/ And I'm not ashamed to say/ The roar of guns and cannons almost made me cry//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The stars were bright, Fernando/ They were shining there for you and me/ For liberty, Fernando/ Though I never thought that we could lose/ There's no regret/ If I had to do the same again/ I would, my friend, Fernando//
Now we're old and grey Fernando/ And since many years I haven't seen a rifle in your hand/ Can you hear the drums Fernando / Do you still recall the frightful night we crossed the rio grande / I can see it in your eyes/ How proud you were to fight for freedom in this land//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The stars were bright, Fernando/ They were shining there for you and me/ For liberty, Fernando/ Though I never thought that we could lose/ There's no regret/ If I had to do the same again/ I would, my friend, Fernando//
There was something in the air that night/ The stars were bright, Fernando/ They were shining there for you and me/ For liberty, Fernando/ Though I never thought that we could lose/ There's no regret/ If I had to do the same again/ I would, my friend, Fernando/ Yes, if I had to do the same again/ I would, my friend, Fernando.../

3년 짜리 운전 면허 받기 New Driver's License for Ol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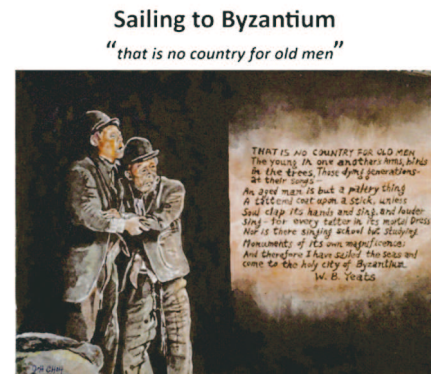
조 중 행(69, 시카고)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from Sailing to Byzantium, William Butler Yeats. 금년 말에 나의 운전면허가 만기가 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은 노인들에게도 필수이고 작년에 갱신 받았고, 한국에서는 운전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나와 아내도, 여러 가지 할인 혜택, 신분 증명의 용도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전에 받아 놓았던 한국의 운전면허를 금년 봄에 한-두 달 서울에 머물게 된 기회에 재 발급받기로 했다. 금년에 나이 80이 되는 서울의 동기생 몇몇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의 재발급을 포기했다고 한다. 알아보니 그 과정과 필요한 조건이 치매 검사, 적성검사, 교육, 시력검사 등 미국보다 복잡하고, 우리 나이에 재발급 받는 면허는 유효기간도 삼 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소문하여 동네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하는 치매검사소에 힘들게 예약을 하고 어느 날 아침, 산보 삼아 아내와 같이 갔다. 먼저 설문 조사, 학력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두 사람은 각자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서 중년 여성 시험관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한다.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 몇 개 그리고 비교적 긴 문장을 읽어주고 몇 분 후에 기억했다가 그대로 다시 낭독하여 주는 검사였다. "김 XX는 X년 XX일 오전 X시에 자전거를 타고 XX동에 있는 XX공원으로 가서 30분 동안 XX 운동을 하다 돌아왔다"를 한번 읽어주고, 한 5분 동안 몇 가지 관련 없는 다른 질문을 하며 정신을 빼앗고 난 후, 잊을 만한 시점에 위의 문장을 외어- 반복시키는 시험이었다. 한 15분 걸렸을까? 답을 하려니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떨어져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로 기록에 남겨야 하는 것은 내가 이 검사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옛날 대학 입학시험 발표 나오는 날 만큼은 아니었지만 흐뭇했다. 시험관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참 잘하셨습니다. 혹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시험관님! -원하시면 조지훈의 시 '산중 문답', Shakespeare Hamlet의 독백 'to be or not to be'도 도연명의 귀거래사나 소동파의 '전 적벽부'도, William Words-

worth의 Intimations of Immortality" 정도는 한번 외워서 읊어 드릴 수 있는데 - 답 "아니-괜찮습니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치매 검사장을 나왔다. 며칠 후 용인시 기흥구(옛날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물도 없는 강촌이었는데)에 있는 현대식 시험장으로 한 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서 여러 할머니 할배들과 같이 증명사진도 찍고, 시력검사 또 강의실에 모여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Power Point 교육, 실시간 순발력 교통규칙 시험 등을 받았다. 걸음걸이, 시력 모두 불행해 보이는 노인들도 여러 명 있었다. 아마도 이 순발력 검사에서 나는 몇 가지 오답을 내었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한 B- 정도 학점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 한 삼십분 더 기다려서 드디어 우리는 3년짜리 운전면허를 받아들이고, 은전을 배풀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시험장을 나왔다. 날씨 좋은 봄날 오후 몇 시간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보냈다. 그러나 기분은 찜찜하기만 하다. 3년짜리 면허라니? 대한민국 정부는 확률적으로 우리 부부가 3년 후에 운전을 할 수 있을런지, 그때까지, 아니 살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염려가 된다고, 겁을 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즈음도 골프장에 나가면 시니어 티에서 티-어프(Tee-off) 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자존심(거리와 스코어는 일급비

밀임)에 이들은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은가? - 감히? 요즈음도 O.B를 조금도 겁내지 않으며, 9도짜리 드라이버의 강렬한 스윙으로 짝아지는 거리를 만회하는 나에게 그날 오후 한국 정부는 겨우 3년 짜리 면허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었다. 나는 아직 대통령 바이든처럼 희미한 눈빛으로 씨도 안 먹는 말을 내뱉지도 않고, 트럼프처럼 광기 어린 말도 쏟아 뱉지도 않고, R.B. 긴스버그처럼 죽을 때까지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크게 소리 한번 지른다. "야, 이놈들아, 나 여기 아직 잘 살아 있다!"라고 - -- "Hey You Bastards, I am still here!" -Henri 'Papillon' Charriere 영화 **빠삐용** 에서"



종이에 수채 Water Color on Paper, by 조중행, 2024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1954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이다. 오래된 영화이기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모른다. 영화 제목보다 여주인공 젤소미나의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애잔한 젤소미나의 트럼펫 나팔곡 때문일 것이다. 영화 제목을 왜 '길'로 하였을까? 주인공 둘이서 오토바이를 개조한 허름한 삼륜차 트럭을 타고 다니며 길 위를 달리며 사니까 그것을 아예 영화 제목으로 정했나 보다. 그런데 길이라 하면 또 같이 가는 것을 연상케도 한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같이 길을 간다고 표현된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또 길은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는 듯하기도 하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가장 널리 읽혀진 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줄리에타 마시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미녀는 아니지만 이 영화에 출연해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여주인공이 미녀일 필요가 없었고 남 주인공도 미남일 필요가 없었다.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앤서니 퀸도 누가 봐도

미남이라고 부르는게 어려울 것 같다. 이 영화는 오래전 영화라 흑백으로 된 영화인데 영화의 분위기로 봐서 흑백이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상류계급의 대저택과 등장인물들이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나오는 그런 영화와는 좀 거리가 있는 영화다.

영화 길 (La Strada)

나두섭(73, 남가주)



흠여머니와 여동생들과 가난하게 살고 있던 젤소미나를 엄마는 돈을 받고 떠돌이 차려서 잠파노의 조수로 보냈다. 잠파노는 젤소미나에게 광대 노릇을 시켰는데 그녀는 잘 해내지는 못해서 구박을 당했다. 그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삼륜차는 잠파노니로 가득 차 있었고

사방을 넘마로 가리고 다녔다. 잠파노는 그것을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삼륜차 뒤쪽에서 얼굴을 내밀고 가는 젤소미나는 이 영화의 분위기를기가 막히게 잘 나타내고 있다. 가난한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다 서커스에서 광대로 일하는 나자레노를 만났는데 그는 젤소미나에게 친절히 해 주었고 이 사람이 젤소미나에게 이 영화의 상징적인 나팔곡을 가르쳐 주었다. 그 서커스에서 잠파노도 한동안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잠파노의 차려쇼를 비웃었고 또 젤소미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서 둘이 다투다 잠파노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그 서커스는 젤소미나에게 잘 대해 주었지만 그녀는 서커스를 따라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유치장에서 나온 잠파노와 합류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 얼마 후에 인적 없는 갯길에서 펑크 난 차바퀴를 갈고 있는 나자레노를 만났는데 옛날의 감정과 그의 놀림으로 다시 싸움이 일어나 잠파노는 주먹을 날렸는데 나자레노는 쓰러져 그냥 죽고 말았다. 다시 잡혀갈 수 없다며 <다음면에 계속>

유타(Utah)가 궁금타

박은경(00졸, 핵의학, 유타)

십여년의 미국 생활 동안 학업과 직장을 따라 이사하며 유타(Utah)주를 다섯 번째 삶의 터전으로 만나게 되었다. 미국 지도에서 동서부의 몇몇 대도시 정도만 인지하고 살았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인연이 닿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나에게 유타는 무척이나 새로운 지역이다. 무수한 동문 선배님들 중에서도 유타에는 딱 한 분 계셨다고 들은 베일에 쌓인 곳.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 미터 결선에서 우승한 김동성 선수를 실격시키고 반칙왕 안톤오노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을 떠올리면 여전히 감정의 양극이 올라오는 곳. 무엇보다도 특정 종교만이 강하게 연상되어 선뜻 선택하기는 망설여졌던 곳. 이곳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으며 그동안 발견한 매력을 나누려 글을 쓰고 있으니 인생은 참, C'est la vie! 이다.



출퇴근길 와사치(Wasatch) 산맥풍경

집에서 병원까지는 십 여분 남짓 걸린다. 짙막한 출퇴근길이지만 코앞에 펼쳐지는 자연경관에 매일 낮을 잃고 운전한다. 여기는 혹시 스위스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면서.

솔트레이크시씨티(Salt Lake City)는 앞서 말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답게 겨울엔 동화같은 함박눈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싼 와사치(Wasatch)산맥에 두툼하게 쌓인다. 12월 말에 도착한 우리를 맞아준 것도 뉴욕주 버팔로에서 본것보다 더한 폭설이었다. 봄이 되면 푸르른 잔디와 초목들이 돌아오는 중에, 눈 앞의 산등성이에는 7월 초까지도 그대로 쌓여있는 흰눈이 아름다운 대비를 연출한다.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광선을 견뎌내는 키가 작고 마른덤불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전혀 다른 풍광을, 가을에는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든 산세가 마치 컴퓨터

로 매만진 사진처럼 강렬한 붉은웅단을 펼친다.

203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작년 여름에 발표된 후로 도시는 벌써 흥분과 준비로 들썩인다. 경기장 유지보수가 잘되어 있어 새경기장을 짓지않고도 32년만의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다 하고, 100% 태양열 에너지만으로 스키장 및 부대시설 전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시의 계획을 보니 환경친화적인 행사에 대한 의지도 강력해 보인다. 아직 자원봉사자 등록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지난번 올림픽때의 경험을 즐겁게 얘기하는 열기를 보면 올림픽이 십년 후가 아니고 내년인가 싶다. 유타 토박이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이웃은 스키장 근처 부동산 값이 이미 기대감으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며 늦기전에 하나 사 놓으라고 권유한다. 올림픽 시즌에 단기 월세만 주어도 엄청난 재미를 볼거라 귀뜸하며.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타주와 이웃인 콜로라도(Colorado)주가 과연 누가 겨울 스포츠의 왕국인가를 두고 벌인다는 자존심 싸움이 떠 오른다. 조사한 바에다가 사심을 더하면 이 설전(舌戰)이자 설전(雪戰)은 유타의 관정승(?) 아이는 학교에서 배웠으며 대염호(Great Salt Lake)덕분에 이곳의 설질이 아주 좋다고 설명해 준다. 대염호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염호로, 이스라엘의 사해와 염도가 비슷하다. 사막쪽에서 불어온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호수를 만나스키 타기에 좋은 가루처럼(powdery) 가볍고 마른 양질의 눈을 만들어내는 원리란다. 강설량도 풍부한데다가 고지대에 위치한 덕에 천연설이 시즌내내 녹지않고 유지되니, 스키나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이 칭송하며 멀리서 찾아올 법도 하다. 어쨌든,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서는 짐가방을 찾는 곳 옆에 따로 설치된 '스키전용' 수화물 회전대가 기다란 스키가방을 끊임없이 쏟아내더라. 물론 이 동네사람들도 소위 "Greatest Snow on Earth"에서 스키, 스노보드, 스노슈잉(snow shoeing, 설피를 신고 걷거나 달리는 것) 등이 흔한 취미인데, 우리도 동료 중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스키를 즐긴 후 출근하는 열혈파도 있다.

다른 계절에도 볼거리 할거리가 많은데, 국립공원을 빼놓고는 유타주를 이야기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아홉개)와 알래스카주(여덟개)에 이어 'Mighty Five'라고 불리는 다섯 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숨이 멎을만큼 경이롭고 아름다운 찬사를 듣는다.

<전면에서 계속> 잠파노는 시체를 유기하고 나자레노의 차를 폭파 시켰는데 그 사건 이후 젤소미나는 미치게 되었고 일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지지 않자 잠이 든 그녀를 버려두고 잠파노는 혼자 길을 떠났다.

몇 년이 지나서 잠파노는 대형 서커스에 합류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의 어느 여인이 젤소미나의 나팔곡을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누구에게서 배웠냐고 물으니 바닷가에서 만난 어느 미친 여자에게서 배웠고 그 여자는 죽었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파노는 술을 들이켜고 울고 부르짖으며 바닷가를 배회하다 파도치는 해변에 쓰러진다.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라 하기도 어렵고 로맨스 영화라고는 보기에는 더욱 맞

지 않는다. 아무리 찾아봐도 둘 사이에 다정한 대화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애정이 오고 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잠파노는 젤소미나가 죽은 것을 알고 자기도 따라 죽었으면 할 만큼 슬퍼하였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닌가? 젤소미나가 한 영화 대사 가운데 "나는 예쁘지도 않고 밥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나를 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는 이것을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두 사람은 항상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따뜻한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도 둘 사이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도 어디선가 젤소미나의 트럼펫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Arches, Bryce Canyon, Canyonlands 그리고 Zion 이렇게 네 군데에 가보았고, 아직 Capitol Reef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모두 다른 개성으로 뽐내는 웅장한 절벽과 광대한 협곡, 섬세하고도 기이한 암석은 이 지구의 것인가 싶을 정도로 흥미롭다. 특히 2천여개의 아치(활 모양의 암석)를 거느린 Arches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Delicate Arch 아래에 누워 바라본 아슬아슬하게 거대한 돌기둥, Bryce Canyon을 수놓은 버섯 모양의 후두(hoodoo) 사이로 하이킹을 하며 느꼈던 자연과의 교감은 잊을수가 없기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생명의 기운이나 온기가 없을 것 같았던 돌덩어리에서 깊은 감정을 느끼다니, 태고에 잠시 손이 닿았던걸까? 유타에는 공동화석도 많아 채굴장(quarry)도 열 두 군데나 있고 공룡 국립기념비(Dinosaur National Monument)도 설치되어 있다. 마침 박문호 박사님 강의(<https://youtube.com/@tv-m19ly>)를 틈틈이 애청하던 터라, 지질학과 고생물학에도 관심이 생겨서 유타 대학이 운영하는 자연사 박물관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앞으로는 주말에 더 바빠 움직여야겠다. 한때는 미시간 호수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



Delicate Arch

되는 본네빌 호수(Lake Bonneville) 물이 빙하기 말에 완전히 마르면서 형성되었다는 새하얀 소금평원(Bonneville Salt Flats), 옐로우스톤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들소(bison) 때 등 각종 야생동물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는 앤틸로프섬주립공원(Antelope Island State Park),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천 채굴광산으로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빙햄구리 광산(Bingham Copper Mine), 영화 '텔마와 루이스(Theirma and Louise)'에서 주인공들이 자동차 가속 페달을 질끈 밟고 협곡 위로 날아가는 마지막 장면의 촬영지이기도한데 드홀스 포인트 주립공원(Dead Horse Point State Park), 작년에 개장한 기막히게 아름다운 글램핑(glamorous camping) 리조트인 ULUM Moab 등 근사한 곳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온 나의 답사를 기다리고 있다. 핵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퀴리 부인이 와서 우라늄(uranium) 표본을 채취해 갔다는템플 산(Temple Mountain)도 이미 목록에 적어 두었다.

유타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더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코스트코

(Costco) 매장은 바로 여기 솔트레이크 시티이다. 2015년에 개장한 솔트레이크 시티 지점은 면적이 235,000 sqft로 보통 매장 평균인 146,000 sqft 보다 꽤나 크다. 어쨌든 장을 볼때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살짝 지친다 싶었다. 다채로운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 편리하지만, 싱싱한 해산물 코너를 늘려 준다면 더욱 고맙겠다는 욕심을 부려본다. 궁금하여 찾아보니 세계에서 가장 작은 코스트코 매장은 알래스카 Juneau에 있고, 솔트레이크 시티 매장의 삼분의 일 크기로 나온다. 거긴 연어코너가 매장의 반이려나?

KFC (Kentucky Fried Chicken)의 첫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이 솔트레이크 시티이다. 켄터키주의 Sanders Court & Cafe라는 한 주유소 식당에서 시작한 닭튀김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1952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매장을 솔트레이크 시티에 열면서 이 지점의 초대 점주인 Pete Harman의 아이디어에 힘입어 KFC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였다. 매장에 가면 KFC라는 간판을 처음 내 건 역사가 담긴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심심하지않게 기다릴 수 있다. 호텔업계에서 굵직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어트(Marriott) 호텔도 유타에서 시작되었다.

"This is the place!"라고 외치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땅에 정착한 모르몬(Mormon) 사람들(종교의 공식 명칭은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DS)의 이야기는 유타주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예를들어,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의 주소 체계를 보면 뉴욕 맨하튼처럼 숫자가 많이 보이는데, LDS 교단의 본부라 할 수 있는 템플스퀘어(Temple Square)를 중심으로 한블럭에 100씩 주소 번호가 동서남북으로 증가하는 좌표 형태이다. 즐겨가는 커피숍이 템플스퀘어의 동남쪽에 있는데, 주소가 820E 400S이니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여덟 블럭, 남쪽으로 네 블럭쯤에 위치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솔트레이크시티 인구 중 60-70%는 모르몬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고, 주 전체로 보아도 타 종교가 절반에 가깝다.

한인인구가 꽤 되고, 몇 달전에는 H-mart도 들어왔고, 내년 여름에는 인천직항 항공편도 생기는 유타, 유타가 계속 궁금타!

시계탑 10월 호 편집회 초록



참가자: 노영일, 서윤석, 서인석, 서귀숙(선약) 박은경, 황창근 사장, 제이미 김
개회 선언에 이어서 황사장의 북미주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시계탑 문집-화집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11월 말까지는 모든 편집(360여 쪽)이 완료되어 가편집이 나오면 서윤석 편집장과 노영일 화집담당 위원이 검토한 후 곧 인쇄로 들어간다. 서울에서 인쇄할 예정이며 내년 3월 말까지 도착하여 2025년 4월호 학술대회에서 일차 배부한 다음 4월호 시계탑과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표지 그림은 김명원 화백, 제호는 서예가인 정균희 동문이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미 도착된 표지 그림 위에 기다리는 중인 정 동문의 글이 들어오면 김명원 편집위원이 화백, 편집위원이 재검토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박은경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 주 소개와 "이 사람의 향기-10문 10답" 두 산문을 수일 내로 완성하기로 하였다. 이사회 초록, 사진, 학술대회 광고 등을 재확인하고 2024년 Directory 수정사항 공고와 함께 1면에 실기로 했다.

이날 참석은 못 했어도 원고의 교정은 서귀숙 위원이 늘 수고함에 고마움을 표한다. 컴퓨터 수신에 문제로 인해 회의에 참석을 못 한 서량 위원은 새로운 원고를 보내왔다. 지난 3개월 동안에 강상진 선배님을 비롯하여 동문들과 두 사모님, 모두 아홉 분이 작고하여 마음속으로 아파하면서 명복을 빈다. 사진촬영 후 편집회를 마쳤다. 다음 1월호 편집회는 2025년 1월 11일 토요일로 예정이다. - 글; 서윤석

노예해방 과정에서의 링컨의 변신(變身)과 타협

박인영(75, 버지니아)



1861년에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무렵 노예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링컨 자신의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 자체부터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개인적 신념으로는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이 위선적인 제도가 오래가지 않아 저절로 소멸될 것으로 믿었지만 정치가로서는 각 주의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부주들의 흑인노예제도가 계속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더 구체화됐는데 링컨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 있을 때 서둘러 남부주들에게 그들의 주권(州權) 행사에 간섭할 의사가 없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제는 일개 정치인의 신분이 아니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그에게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책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그의 신념을 나중에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2년에 그의 정책수행에 분명한 지향점이나 결단이 없음을 비판한 뉴욕트리뷴 편집자 호레이스 그릴리에게 보낸 답신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이 전쟁에서 나의 지상(至上)의 목표는 국가를 (분열로부터) 구하는 것이지 노예제도를 폐지로부터 구해내거나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노예를 한 명도 해방시키지 않고도 국가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노예제도와 흑인종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은 그것이 국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중국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링컨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Act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도망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을 규정한 법)을 계속 시행할 것을 지지했고 남부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예해방을 선언했던 장군들의 명령을 취소했다. 그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도 거부한 것이었는데 구국(求國)에 대한 그의 굳은 결심은 취임식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던 중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라를 구하겠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바로 이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겠습니다.”

링컨의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남부주들은 새로이 편입되는 서부의 광대한 지역으로의 노예제도 확장을 반대하는 링컨의 취임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노예제도 그 자체도 방해하리라는 우려에 결국 남부연합으로 독립을 선포하여 남북전쟁의 참혹한 내전은 시작됐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링컨의 예상은 머지않아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리라는 것이었는데 실제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사상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만 해도 적게 잡아 62만 명이었고 실제로는 75만 명으로까지 추정됐는데 이 숫자는 당시의 미국 인구 3천 1백만의 2.4%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전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그는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됐는데 개전 초기에는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못되었던 노예제도의 문제에 직결된 것들이었다.

전쟁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에 링컨이 북군 사령관에 임명됐었던 맥클렐런과 민주당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자신들의 피를 흘리기를 거부하며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 노예해방을 포기하고 중

전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반면에 강경한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은 그들대로 링컨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노동자들은 노예들이 해방될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을까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여러 도시에서는 인종폭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북군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여론은 전쟁이 지쳐가고 있었고 링컨의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사라져 가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때문에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자 오히려 남부연합과의 타협을 절대 반대하며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싸우자는 여론의 압력도 있었다. 이런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진 링컨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탈퇴하지 않은 경계주(border states)들의 노예 소유주에게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해방된 노예들은 백인과 분리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의 석탄광산이나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로 이주시키는 방법까지 고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링컨을 향해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위대한 해방자’는 ‘위대한 타협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라고 비난했다. 링컨의 정부가 이런 진퇴양난의 난관에 처해 있을 때 새로운 변수(變數)가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남부의 노예주에서 북부로 자유를 찾아 도망해 오는 흑인 노예들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북군 지역으로 탈출해 오는 흑인 노예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급증했지만 북군의 백인 병사들은 흑인들과 같이 싸우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을 전투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수가 북부주에 비해 반 정도 밖에 안되는 남부연합은 인력의 부족함을 매꾸기 위해 벌써부터 수많은 흑인들을 전쟁터에 동원해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북군의 전사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신병을 모집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흑인들을 북군을 위해 싸우게 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때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탈출해 온 흑인들을 정식으로 전투에 동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드디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방법을 내각에 제시했는데 바로 노예해방선언이었다. 그것의 목적은 노예제도의 폐지가 아니었고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남부연합으로부터 대거 탈출하여 북군에 가담하도록 함으로써 북군의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동시에 남부연합을 붕괴시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다.

링컨은 1862년 9월 22일에 노예해방을 앞으로 선언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 “이것은 내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며 이것으로 승리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그의 비장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중대한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남부연합에 1863년 1월 1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노예해방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경고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링컨이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에 대해 갖고 있던 그의 진의(眞意)를 알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남부연합이 기한 내에 항복한다면 링컨도 노예해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군을 위해 싸운 흑인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남부연합은 항복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해지자 군사적인 필요성 때문에 임시로 공표했던 노예해방은 더 이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전쟁의 목표로 변하게 되었다. 북군과 싸운 흑인 병사들의 희생은 막심했는데 남군은 사로잡은 북군의 백인 병사는 포로로 대해 주었지만 흑인 포로들은 무참히 사살하거나 산 채로 묻는 식의 방법으로 몰살시키기도 했다. 이런 지경에도 링컨이 전선의 흑인 부대를 방문했을 때 흑인 병사들은 그를 해방시켜준 은인으로 크게 환영하며 “신이여 링컨 주인님을 축복해 주소서” 혹은 “주여 아버지 에이브러햄을 구해 주소서”라고 환호하고 웃으며 그에게 바치는 찬송가를 불렀는데 링컨은 이 정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체험은 그로 하여금 노예해방의 정의로움에 대해 열렬한 신념을 품게 만들었다.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던 중 앤티탐 전투에서 남군을 최초로 격퇴하고 승기를 잡게 된 링컨은 드디어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 선언문에 서명하고 미합중국 영토 내의 모든 노예는 영원히 자유로울 것임을 선포했다. 서명하기 전 떨리던 손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그리고 주의깊게 서명을 마친 링컨은 “나는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일을 한다고 확신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만일 내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된다면 그것은 이 노예해방선언 때문일 것이고 나의 전 영혼은 여기에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링컨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상(理想)은 공인(公人),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목표와는 모순적인 관계에 있음을 위에서 기술했는데 노예해방선언을 한 후 백악관을 방문한 오랜 친구 조슈아 스피드에게 상기시켰던 옛이야기는 그 모순을 극복한 내면적 성취감을 잘 보여준다. 링컨은 자기가 20여년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할 생각을 했을 때 기꺼이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아무도 자기가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회상을 하며 이제 노예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희망들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 역사적인 위업을 이룩함으로써 갈등과 고민을 거듭하던 링컨의 내면

세계는 드디어 모순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선언했던 노예해방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발표한 것이었기에 합법성이 도전받을 가능성이 컸고 전쟁이 끝나는 대로 폐기될 수도 있었으며 미래에 태어날 흑인들의 세대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었다. 링컨은 이런 가능성들을 영구히 없애기 위해 수정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법안은 상원에서는 38대 6의 큰 차이로 1864년 4월 8일에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6월 15일에 치뤄진 투표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출석의원의 3분의 2에 13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 법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기로 결심한 링컨은 이 비상 상황에서 도덕적인 인격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그로서 취할 수 없을 비정상적 수단들을 동원했는데 그것은 반대파인 민주당 의원들을 뇌물로 매수하거나 법관이나 대사 직(職) 같은 매력적인 자리를 제공하고 처벌도 면제해 주는가 하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이런 비상한 뒤집기 작전을 펼친 끝에 1865년 1월 31일에 있었던 하원 표결에서 8명의 의원들이 결석한 가운데 찬성하기로 마음을 바꾼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표에 힘입어 단 2표 차로 가결되어 드디어 13번째 수정헌법으로 제정되는 기적을 링컨은 일으켰던 것이다.

가장 숭고한 목적의 법안이 헌법으로 제정됐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비도덕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공화당 하원의원 테데우스 스티븐스가 내렸던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교사(敎唆)한 부패한 수단에 의해 통과됐다”라는 평가는 링컨의 인격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노예해방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링컨이 보여준 다면성과 변신은 도대체 그의 행동의 배후에는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은 그의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면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그는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의 운명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운명론과 예정설을 믿었고 그의 좌우명은 ‘나의 정책은 정책을 갖지 않는 것이다’였는데 이런 그의 원칙이 없는 태도는 주위 사람들을 격노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편을 원했으며 자신의 이상을 좇는 이상주의자이기 보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행동하는 실용주의자였다. 혼란 속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국뿐 아니라 세계사상(上) 영원히 남을 업적을 이룩한 그의 근본 철학은 “내가 사건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사건들이 나를 지배해 왔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라는 그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정직을 포함한 도덕성에서 그 누구도 가까이할 수 없는 인격자였고 프레더릭 더글러스에게 ‘링컨 대통령의 이름은 절대로 경의와 감사와 애정을 품지 않고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찬사를 받은 링컨이 13번째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범위를 사주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면(裏面)의 진실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국 헌법이 천명(闡明)한 인권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위대한 인물로서 그의 이름은 언제까지나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7월에 발행된 시계탑 51권 3호 3면에 안세현(67)을 안세현(68)로 바로 잡습니다.

2024-25 회비 및 후원금 현황

남명호 53대 회기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1954 이동식	1956 박상기 서상철
1958 김부근 김시한 박호현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최병두	
1959 나길진 방석운 최대한 최종진 최용천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완주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전희근 한성수	
1961 고의걸 광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안창현 이재승 장태환 조은순 진창건 한수웅 한혜원	
1962 김석식 김호균 박종건 박종승 승홍일 엄태근 이상무 이석우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1963 김승태 김태웅 김태형 김학중 마동일 박승균 송용덕 신경호 윤영섭 윤영욱 윤찬수 이승현 조한원 추재욱 하상태 한기현	
1964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오수황 윤희기 이재풍 이정은 이종성 이주영 이종오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1965 구경회 김덕진 백길영 손광호 신백효 이범석 이정의 이화성 임현재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한재은 홍수승	
1966 광일성 김우신 김은한 김의신 김충규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규용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1967 강명식 김성철 김영철 김재석 박정일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태안 전영성 지일성 최승웅	
1968 고남규 김 철 김경인 김재관 김주평 김진수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서윤석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병순 이한홍 정재성 주광국 최 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중권 도상철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윤희윤 이지훈 정한규 조중행	
1970 김광현 박홍식 오석일 이명상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1971 강유구 강태수 광승용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온기철 이원택 이창우 장 철 정인용 하준영 황동하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윤성수 이신재 이철재 정희현	
19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위장호 조재종	
1974 구재훈 임자은 유영준	1975 김원정 박인영 왕규성
1976 최광휘	1977 박정식
1980 박남훈	1984 구철회 서귀숙
1985 김자성	1989 이선규
1991 강민중	1999 김정훈 이도은
2000 박은경	

Research & Fellowship Donation

박명근(60)	250	임필순(60)	50	이재풍(64)	200	구경회(65)	200
---------	-----	---------	----	---------	-----	---------	-----

General Donation

서상철(56)	75	한성업(59)	50	나길진(59)	75	권기홍(60)	2,000
임필순(60)	125	김화섭(61)	125	안창현(61)	50	진창건(61)	100
한수웅(61)	100	한혜원(61)	100	박종승(62)	250	장항순(62)	75
김태웅(63)	1,000	김학중(63)	175	신경호(63)	75	조한원(63)	75
추재욱(63)	50	권정덕(64)	200	김용두(64)	75	송원길(64)	125
양운택(64)	100	이재풍(64)	200	백길영(65)	100	정길화(65)	75
채도경(65)	100	채무원(65)	200	광일성(66)	100	이인수(66)	100
장한교(66)	75	김성철(67)	75	김희주(68)	100	이병순(68)	875
이한홍(68)	50	홍광신(68)	100	김중권(69)	200	서 량(69)	3591.50
광승용(71)	75	김유식(71)	75	김일영(71)	1,000	김창구(71)	100
박동수(71)	100	서상현(71)	75	오동환(71)	100	장 철(71)	75
하준영(71)	75	오용호(72)	2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유영준(74)	175	김원정(75)	100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이도은(99)	200	Mrs. 송영두(62)	200	이희자(고 이상훈 68 부인)			1,000
강귀순(고 강창홍 71 부인)			700	*서량(시계탑 기금)			

Scholarship Donation

이만택(58)	100	이종국(58)	200	임필순(60)	50	한성수(60)	175
박종승(62)	100	김태웅(63)	10,000	송용덕(63)	300	한기현(63)	375
이재풍(64)	200	백길영(65)	75	이영균(67)	300	김주평(68)	125
이한홍(68)	100	오석일(70)	20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300
서정자(71)	400	김천일(73)	100	김공자(고 김국민 60 부인)			3,000

Charity Donation

이종석(60)	175	박승균(61)	100	이태봉(62)	100	홍선경(64)	100
최영자(66)	200	이한홍(68)	100	민인기(73)	200	심인보(83)	100
김자성(85)	75	강귀순(고 강창홍 71 부인)			300		

Green Project Donation

이종석(60)	200	정정수(62)	375	유우영(68)	175	박인영(75)	150
박남훈(80)	300	서귀숙(84)	100	강민중(91)	100	이도은(99)	200
임경수(23)	100						

AASCDTF Donation

김태환(64)	100	유 달(67)	100	김창구(71)	75	석창호(72)	200
				김광현(70)	\$1,000		

Directory Donation

Sigetop MoonJip Donation							
송세엽(58)	75	나길진(59)	500	한성업(59)	50	이재승(61)	250
엄태근(62)	50	김태형(63)	100	송용덕(63)	50	이재풍(64)	200
신백효(65)	75	강명식(67)	175	서윤석(68)	500	이건일(68)	100
김병오(69)	100	조중행(69)	100	조남현(70)	200	배성호(71)	100
박상호(71)	100	배성호(71)	100	온기철(71)	500	김천일(73)	50
나두섭(73)	200						

2024년 북미주동창회, 김태웅, 김일영, 고 이철희 장학금 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

Dear SNUCMAA OF NA

I am writing to express my most sincere gratitude for being awarded the 2024-2025 Late Chull Hi Lee, M.D. Scholarship. It is an incredible honor to be recognized by such a prestigious organization, and I am deeply appreciative of your generosity in supporting my educational journey with this award.

This scholarship holds great significance for me as I pursue my aspirations of becoming a physician innovator and advocate for underserved communities. With a deep passion for healthcare, I am committed to advancing medical knowledge and developing solutions that can make a tangible impact on patients' lives. This award will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me achieve my goal of merging medical research with real-world applications, allowing me to bridge the gap between cutting-edge science and its implementation in healthcare settings.

Furthermore, this scholarship strengthens my determination to build strong communities around healthcare. I believe that lasting change requires not only technological advancements but also a unified and engaged community. By fostering collaboration and creating spaces for dialogue and support, I aim to advocate for the unique needs of marginalized groups and drive progress that benefits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Your generous support empowers me to continue on this path with confidence and motivation. I am excited about the future and the opportunities this scholarship will unlock as I strive to be both a leader in innovation and a dedicated advocate for community health.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and for investing in my future. I look forward to making meaningful contributions to healthcare, inspired by the legacy of Dr. Chull Hi Lee and the support of the SNUCMAA-NA community.

Sincerely, Justin Kim Warren Alpert School of Medicine Class of 2028
Brown University Class of 2021

Dear Members of SNUCMAA of NA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I am writing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for selecting me as the recipient of the 2024-2025 SNUCMAA scholarship. This generous support is not only a significant financial aid for my education, but also a strong motivation as I pursue my dream of becoming a physician assistant in primary care.

As a Korean-American, it holds particular meaning for me to receive support from a Korean organization. It reinforces my belief in the importance of serving our community, and it inspires me to work even harder to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lives of others. I am currently enrolled in the Duke Physician Assistant Program, where I am gaining invaluable knowledge and skills that I am eager to apply in a clinical setting.

I understand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this scholarship, and I want to assure you that I am committed to upholding the values and aspirations of our community. I will strive to excel in my studies and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healthcare field. Your belief in my potential encourages me to push my boundaries and strive for excellence in everything I do. Thank you once again for this incredible opportunity. I am truly honored and excited to represent our community as I embark on this journey.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I can give back to those who have supported me and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our community. Warmest regards, Jennifer Kwon

Dear Dr. Taewoong Ki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gratitude for your generosity in funding and providing the Taewoong Kim Scholarship. I take it with the deepest honor that I was chosen to be a recipient of this award this year. As a freshman studying biomedical engineering at Harvard University, I have every intention of pursuing a career in medicine throughout both my undergraduate and graduate education. This award not only strengthens my resolve to pursue this path, but also gives me some of the necessary financial support that I need in order to do so.

Growing up in a lower-income family, financial considerations have long affected my academic and extracurricular pursuits. Being able to receive this award has assuaged some of these concerns, particularly as I am currently making the transition into college from high school.

I am therefore unendingly thankful for the generosity of SNUCMAA in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me. Throughout high school, I have participated in various clinical, research, and nonprofit experiences. I hope to continue to have similar experiences in college, particularly in the former two categories. I also hope that I am able to gain a strong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that underpins the medical field through these experiences. Being able to have this degree of financial support from SNUCMAA will make this wish far more feasible, and I reiterate my gratitude for this munificence.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your kindness.
Sincerely, Ian Park

Dear SNUCMAA-NA Committee Members and Donors,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est and sincerest gratitude for awarding me the 2024-2025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Chull Hi Lee, M.D. (Mrs. Kang Ok Lee) Scholarship. Words cannot fully convey how thankful I am to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this scholarship that honors Dr. Chull Hi Lee's memory and his remarkable medical practice spanning from Maryland to California. This scholarship is more than just financial support—it represents a profound belief in my potential, and for that, I am incredibly humbled.

As I pursue my studies in Applied Mathematics-Biology at Brown University, with the ultimate goal of becoming a medical practitioner, this scholarship is a lifeline that allows me to focus wholeheartedly on my education. Your generosity has not only lightened the financial burden on my family but also given me the freedom to chase my aspirations with unwavering determination.

I take immense pride in my Korean American heritage, and your support further strengthens my commitment to both my studies and my community. It is my sincere hope that in the future, I will be able to give back to the world and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not only as a medical professional but also as someone who has been fortunate enough to receive such kindness and trust.

I will carry this opportunity with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and gratitude, striving every day to honor the faith you have placed in me. Thank you once again for this incredible gift: your belief in me fuels my drive to work harder, dream bigger, and create a lasting impact - just like Dr. Chull Hi Lee.

With all my heart,
Ju-Woo Nho Sc.B. Applied Mathematics-Biology
Brown University, Class of 2025 Alpert Medical School, Class of 2029